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52-11

# 농업·농촌에 희망을 담다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농업·농촌에 희망을 담다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 사례집



## 농업 · 농촌에 희망을 담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동필의 1234”를 34회 진행하면서, 전국의 농촌현장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지역에 대한 기억이 너무 또렷한데, 이들 중 하나가 충북 옥천군 안남면입니다.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안남면도 원래는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면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모아 2007년 “배바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셔틀버스를 마을순환버스로 활용하여 교통과 교육 및 문화 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이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자동차가 없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역량은 미약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쳤을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활기차고 행복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우수한 공동체를 널리 알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 공동체 사례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노인복지, 교육·문화, 결혼이민여성 지원서비스 등 민간 공동체 사례 외에, 공동거주제, 공동급식 등 지자체의 주민체감형 사회서비

스 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0개의 이야기마다 지역사회가 처했던 어려움과 문제점,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성과와 기쁨,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글을 모르던 80세 노인이 한글을 깨치고, 폐교가 되어 학교가 사라진 마을에 주민과 귀촌인이 힘을 모아 학교를 되살리는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 농촌과 농촌공동체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작지만 하나씩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의 복지·교육·문화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공동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고동락”의 농촌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여 확산하는데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갑오년 말띠해를 맞이하여 말처럼 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300만 농업인 모두가 올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동 필

## 제 1장

민간 공동체  
사회서비스 사례

### 행복한 노년을 사는 농촌 공동체 이야기

- 13 전남 영광 | 여민동락공동체
- 25 강원 인제 | 백담마을
- 35 충남 서천 | 내남마을 은빛도우미
- 45 전북 완주 | 삼례읍 자운영학동마을
- 55 전남 나주 | 남평농협 9988봉사단

### 공동체가 가꾸어 가는 교육/문화 이야기

- 67 충북 단양 | 한드미마을
- 77 울산 울주 | 소호산촌유학센터
- 87 전남 곡성 | 죽곡농민열린도서관
- 97 충남 서천 | 여우네 도서관
- 107 전남 곡성 | 웃음만땅지역아동센터



# Contents

##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의료 이야기

119 충북 옥천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131 경기 안성 | 안성의료생협

## 이주여성의 행복한 농촌 정착 이야기

143 전북 익산 | 농촌이주여성센터

153 전북 완주 | 북카페 보물섬

##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자체의 복지 이야기

167 전북 무주 | 작은 목욕탕

177 충남 서천 | 희망택시

189 경남 의령 | 독거노인 공동거주 사업

##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 이야기

201 강원 횡성 |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11 대구 달성 | 효경노인복지원

221 충북 영동 | 영동사회서비스센터

## 제 2장

지자체·기관  
사회서비스 사례



# 민간 공동체 사회서비스 사례

노인복지



교육 · 문화



교통 · 의료





# 행복한 노년을 사는 농촌 공동체 이야기

전남 영광 | 여민동락공동체

강원 인제 | 백담마을

충남 서천 | 내남마을 은빛도우미

전북 완주 | 삼례읍 자운영학동마을

전남 나주 | 남평농협 9988봉사단





#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 핵심 키워드

###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

- 비영리법인 복지센터서 노인복지사업 전개
- 모시잎 송편 등으로 '선순환 나눔' 추구
- 묘량면 유일한 생필품 판매점 '동락점빵' 운영
- 18개리 경로당에서 품앗이학교 개설

### 소득과 품앗이 모두 성공

- 신뢰와 학습으로 공동체 기틀 다져
- 노인재가시설 등 노인관련 마을복지 토대 마련
- 농촌공동체회사 중심의 마을경제 활동
- 학교가 젊은 인구 유입의 출발점이란 점 확인

## 개요

젊은 세 부부가 농촌에 가서 살자고 뜻을 합쳐 내려온 곳이 전남 영광이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출자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출자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 능력을 합했고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더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여민동락'으로 지었다. 여민동락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살자는 것이었다.

## 사업의 내용

### 비영리법인 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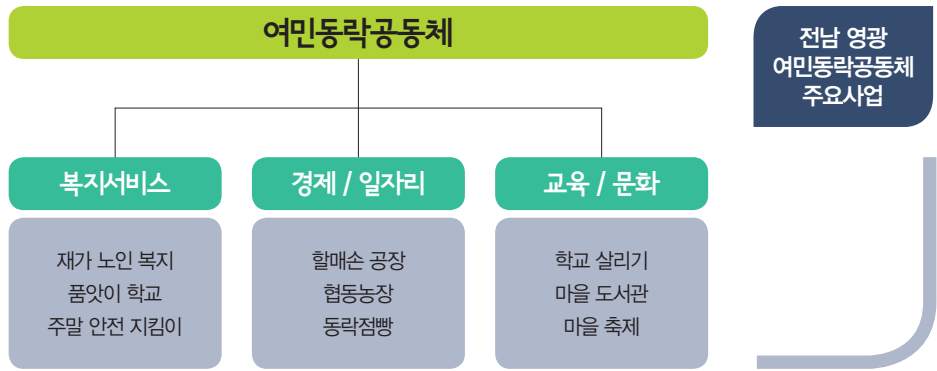
2007년 전남 영광군에 자리를 잡은 여민동락은 2008년 6월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여민동락은 여민동락공동체와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등 두개의 법인으로 조직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여민동락복지센터는 노인과 마을주민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100여명의 노인들을 매일 아침 복지센터로 모시고 와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하면서 체조와 그림 그리기 등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복지센터에 나오시는 노인들 중 30여명은 혼자 사는데다 거동이 불편해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른들이다.

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찻집도 운영한다.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무료라고 하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찻값은 계산된다. 오며가며 찻집에 들른 주민들은 찻값 대신 형편이 닿는 대로 오이나 호박 등 농산물을 복지센터에 기부하는 형태다. 이렇게 운영되는 무료 찻집은 마을주민의 쉼터이자 만남의 공간인 셈이다.

아울러 복지센터는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5일장'





을 운영한다. 묘량지역 내 42곳 마을 200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물파스와  
형광등, 식용유 등 생활필수품을 주문 받아 안방까지 사다 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모싯잎 송편 등으로 '선순환 나눔' 추구

한편 여민동락공동체는 영리법인이다.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했다.

지난 2009년 마을주민과 후원자들이 모은 출자금으로 영광의 대표적 특  
산품인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할매손' 공장을 열었다. 동네 어른들이 자  
주 해 드시는 모싯잎 송편에 착안한 것인데, 지금은 영광을 대표하는 특  
산물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여민동락



여민동락 공동체

할매손 공장은 대부분 50대 중반 아주머니들이 손맛을 내주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여민동락 활동에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150여명의 후원자들이 입소문을 내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할매손’이 처음 출시될 때는 상자에 담긴 모싯잎 송편의 크기와 숫자도 제각각이며 맛도 달랐다. 이런 문제들을 후원자들의 의견으로 크기를 규격화하고 맛도 통일하면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 하게 되었다.

여민동락에서는 휴경지에 모시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 생산단가를 낮추고 영농사업단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받은 동부콩 종자를 가지고 콩을 재배하고 있다. 여민동락은 이 두 가지 원재료를 친환경무농약인증을 받았으며 100% 국내산 모시송편을 생산하고 있다.

여민동락이 ‘할매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가동을 한 것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떡공장이 어른들이 아주 가볍게 소득 활동도 할 수 있고 더불어 두루 품앗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었다. 모싯잎 재배부터 송편을 빚어내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어른들을 참여시키고 그 판매 수익금은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모두 쓰일 수 있도록 ‘선순환 나눔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떡공장은 2012년 약 1억9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60여명의 노인 일자리도 만들었다.

### 묘량면 유일한 생필품 판매점 ‘동락점빵’ 운영

여민동락은 2011년 9월에는 ‘동락점빵’도 열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운 지역형편을 극복하고자 트럭을 개조해서 물건을 판다. 말 그대로 이동 점포다. ‘이동5일장’을 시범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묘량면에서 유일한 생필품 판매장인 동락점빵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품목을 미리 주문하면 영광 하나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배달하는 방식이다. 동락점빵은 1억200만원 하던 매출이 2013년에는 1억5000만원 까지 증가하면서 종사자 두 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 묘량면 18개 마을 경로당에서 품앗이학교 개설

영광군 묘량면은 인근의 광주와 비교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묘량면 24개 경로당중 4개 경로당에만 노인체조 등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민동락에서는 이런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경로당을 활성화 하기 위해 찾은 대안이 품앗이학교를 개설하는 것이다. 묘량면의 여민동락은 경로당을 마을복지 센터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해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품앗이학교의 주 대상자는 80대 중후반 어른들인데 대부분 거동이 어렵고 외로운 분들이다. 이들을 위해 일부 전담 사회복지사가 마을에 거주하면서 어른들을 경로당에 모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품앗이학교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은 한글교실인데, 한 할머니는 80평생 한글을 모르고 살아오시다 품앗이 학교 덕분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해하신다.

### 폐교 직전의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여민동락공동체는 2008년부터 노인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복지를 넘어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복합적 접근으로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2010년 시작한 ‘행복한 작은학교 만들기’라는 활동은 농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농촌은 영원한 변방으로 밀려나 회생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었다.

여민동락이 중심이 돼 진행된 이 캠페인은 학부모들이 모여 방과 후 프



이동식점포  
동락점빵

## 사업의 성과

그램 구성 등 다양한 구상을 실현한 학교 살리기 캠페인이었다. 학생수가 12명으로 줄어 폐교되었던 학교가 올해는 학생수가 60명까지 증가했으며, 교육문제가 해결되자 귀촌인도 증가했다. 영광군 주민을 모량면으로 인도하던 학교 살리기 운동이 이제는 영광군 외부에도 홍보를 통해 최근 3가구가 귀촌하는 등 학교 복원이 지속되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에서는 귀촌인에게 인턴 일자리, 빈집 제공 등으로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민동락의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민동락이 진행한 학교 살리기 운동은 고사 직전에 놓인 위기의 농촌 문제는 단순히 농촌복지로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경제와 문화가 서로 시너지를 이뤄야만 농촌의 부흥과 재생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의 소산이기도 했다.

여민동락이 전개하는 사업의 주체인 공동체와 복지센터가 모두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노인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사업도 할머니들과 함께 만드는 모싯잎 송편이 인기를 끌면서 할머니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매일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순번제로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소득과 품앗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 신뢰와 학습으로 공동체 기틀 다져

여민동락의 성과를 따져본다면 설립 초기이후 12명이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에선 영농사업과 가공사업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이 36명이다. 생필품을 구입할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없던 이곳에 사회서비스 형태의 가게가 생겼고 어르신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일정정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여민동락의 공동체 성공포인트는 구성원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끊임없는 '학습'이었다.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많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오래된 소통 및 신뢰의 확인 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지속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 하지 않고는 오래 갈 수 없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을 통해 매주 학습하고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월요학당의 학습목표는 공동체의 존재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평범한 살림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신뢰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노인재가시설 등 노인관련 마을복지 토대 마련

우선 복지분야의 성과를 따지자면 영광군 면단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접근성이 향상됐다. 이는 당사자 이해와 요구에 맞는 보편적 복지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의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통해 마을복지의 토대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다.

마을 주민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품앗이학교, 주말안전 지킴이로 국가재정의 한계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를 극복한 것도 자랑할 만하다. 여민동락의 이런 복지 구현은 경로당을 새로운 농촌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지역공동체 복지형태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싯잎 송편  
'할매손' 공장

### 농촌공동체회사 중심의 마을경제 활동

여민동락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성과는 행복농촌 일자리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자립과 자주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한 모델이다. 휴경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면서 소농 중심의 협동조합 조성 가능성도 보여줬다.

할매손과 동락점빵 등 농촌공동체회사 중심의 마을경제 활동도 의미가 있다. 생산과 유통, 소비의 순환경제계를 통해 2차 가공 산업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역 내 농산물 유통사업이나 마을생협 등 도농직거래사업을 통해 보여준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 및 생산자에게 판매소득을 환원해서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인구를 유지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민동락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지역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도농교류사업의 활력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



여민동락이 운영하는 무료찾집

### 학교가 젊은 인구 유입의 출발점이란 점 확인

특히 여민동락이 지속적으로 추진 해 온 행복한 작은학교 만들기는 학교가 농촌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역할을 할 때 농촌지역에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또한 농촌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나눔축제, 학교거점 마을 축제 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협동과 나눔, 배려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도 큰 성과다.

### 귀촌인과 농촌 주민간의 소통방법 모델 제시

여민동락이 묘량면에 처음 들어와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구멍가게가 있었다. 묘량면 유일의 이 구멍가게는 할머니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민동락이 그 가게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났다. 여기저기서 수군댔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면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또 다른 소문만 무성해진다.

하지만 사람과의 갈등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하는 모든 것엔 갈등과 반목이 있기 마련이고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민동락 공동체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지역민과의 협력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소통이 쉽게 되는 법이 없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민동락이 선택한 방법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다. 방역사업을 벌려나가기도 하고, 아침마다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 생신잔치와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 지내는 프로그램 등 여민동락 공동체의 활동을 보면서 마을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차츰 열었다.

냉대와 홀대가 환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후 호박 한 개, 고구마순 한 봉지, 마늘, 고추, 감자, 옥수수 등 마을주민들은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들고 찾아왔다. 여민동락의 소통이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연대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대표자: 강위원 / 주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묘량로 285  
연락처: 061)353-1141 / 인터넷카페: ymdr.net

## 인터뷰

권혁범  
여민동락  
영광운영본부장

# “사업 활동 평가에 토대를 둔 정부지원 시스템 필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복지예산을 삭감하면 자칫 공동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여민동락 권혁범 영광운영본부장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가 사업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 평가에 의한 지원으로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민동락의 자립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다.

그는 “정부나 복지기관에서 대상자를 선택해 지원하는 방식은 과거형”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복지는 모든 이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복지혜택을 하나의 시민 권리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카페나 공짜 전화 등의 아이디어는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공동체는 한마디로 동업이고, 동업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작고 소박하게 당장의 성과보다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궁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권 본부장은 공동체가 제대로 가려면 결국 좋은 사람과 맞는 좋은 인연이  
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여민동락의 회원참여 유도방식도 남다르다.

“우선 여민동락은 주민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체를 형성해나가  
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이고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수  
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주체가 돼 버리면 마을공동체든 사회서비스든  
방향과 성과가 산으로 갈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권 본부장은 그래서 주민의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고 속도가 늦더라도 자  
연스럽게 함께 가는 과정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 강원 인제 백담마을

## 핵심 키워드

###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부촌의 꿈

- 백담사 오가는 셔틀버스로 마을발전 기틀 마련
- 마을발전기금 적립, 새로운 공동체기업 건립
- ‘마가목 문화축제’ 등 주민 소득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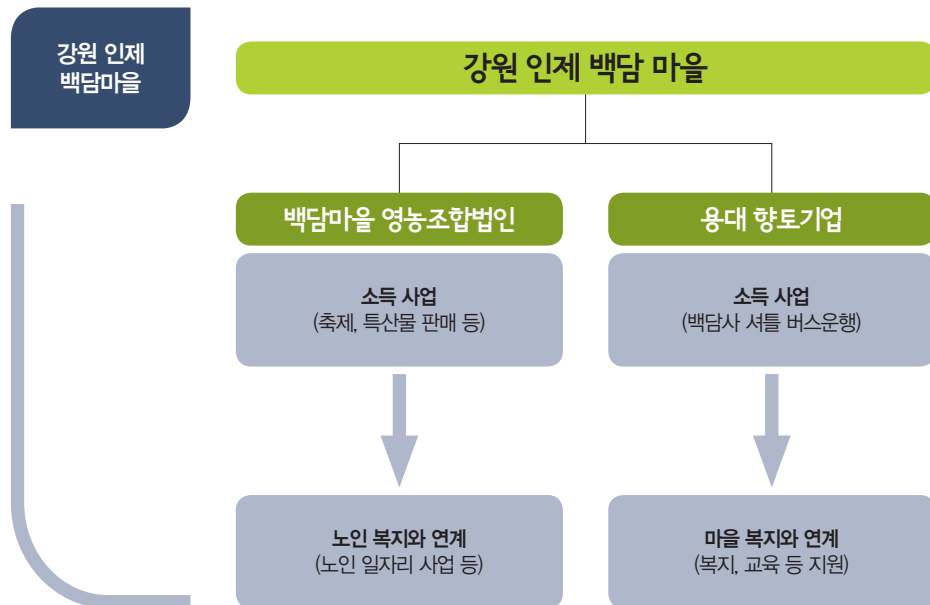
### 일하는 마을로 젊은 사람들 유입

- 주민참여 확대로 잘 사는 마을 건설
- 마을서 진학 장학금-정착 지원금 등 지원
- 떠나는 마을서 돌아오는 마을로

## 개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2리 백담마을. 이곳은 마을 북쪽에 쌍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의 바위가 있어 이를 용바위라 부르고 용바위 아래 마을이라 해서 용의 터, 용대동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행정명으로 용대2리인 백담마을은 백담사를 오가는 셔틀버스 회사를 기반으로 잘 사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았던 백담마을이었다. 젊은 이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마을은 관광객만 오고갈 뿐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백담마을은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마음이 넉넉하니 아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이제 마을은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 했다.



## 사업의 내용

### 백담사 오가는 셔틀버스로 마을발전 기틀 마련

백담마을이 이렇게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백담사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을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백담마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떠나면서 고령화되는 위기에 직면하자 마을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생각해 낸 것이 백담사를 오가는 셔틀버스 사업이었다.

당시 백담사까지 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이는 백담사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대표를 뽑아 백담사를 찾아가 주지 스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고, 백담사에서 그 운영권을 마을에 넘기면서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세운 기업이 용대향토기업으로 이 회사는 백담사에서 마을까지 7.2km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마을버스 회사다. 1996년 버스 두 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10대로 늘어났다.

현재에는 운전기사 13명, 검표와 개표 직원 3명, 사무실 직원 3명을 두고 있다. 18명의 마을 주민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임시직원을 10~12명 정도 더 쓴다. 18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월 200만원을 넘어선다.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겨울철 석 달 동안에는 기본급만을 준다. 매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약 80만명으로 17억원의 대표수입을 얻고 있다.

### 마을발전기금 적립, 새로운 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 건립

여기서 나온 수익은 마을발전기금(1억5000만~2억 원)으로 적립해 마을의 복지, 교육, 문화 사업에 환원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 및 방과후 학교, 경로당 관리, 마을 축제 지원, 별도의 마을주민들이 동참하는 기업 육성 등에도 지원한다.



백담사 셔틀버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가공공장과 판매장을 세우는 데도 용대향토기업이 큰 몫을 했다. 4억 원에 이르는 건축비의 절반을 용대향토기업의 마을발전기금으로 충당했다.

백담마을은 향토기업이 성공함으로서 이 기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백담마을에는 ‘용대2리 주민 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과 버스회사인 ‘용대향토기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한다. 2011년 설립된 백담마을영농조합은 2012년 2월부터 지역 특산물인 황태와 마가목 등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 중이다. 황태는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판매는 아주머니 6명이, 매장 관리는 청년들이 각각 나눠 일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백담마을 전체 220가구의 세대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 세운 알짜 공동체 기업인 셈이다.



2013 백담마을  
마가목 문화축제

### ‘마가목 문화축제’ 등 주민 소득사업 전개

지난 10월 백담마을 주민들이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했다. ‘제5회 마가목 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거나 행사 프로그램 안내서를 나눠주느라 바빴다.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한마음으로 나서 손님들을 맞았다. 마가목은 이곳 마을의 자원인 마가목이라는 나무를 활용해 축제를 열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마가목은 말(馬)의 이빨처럼 힘차게 돋는 새순을 가지고 있어 ‘마아목(馬牙木)’이라 불리다가 마가목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나무, 잎, 열매 모두가 약재로 쓰이며 신경통, 요통, 위장병, 양기 부족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마가목의 약효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주문량도 많아지면서 매출 또한 증가했다. 마가목 판매 초기에는 월 판매량이 1~2봉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가을에는 월 40봉지로 늘었다. 행사가 끝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당 3만5000원을 받는다. 이 돈은 마을에서 준다. 백담마을이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만들기’의 하나다. 영

세한 노인들에게 일거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것이다.

마을에서 일거리가 있다고 어르신들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김을 매거나, 청소하고 꽃을 심는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월 200만원에 달한다.

이 곳 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백담마을에서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큰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일과 삶과 놀이가 하나 되는 생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 주민참여 확대로 잘 사는 마을 건설

버스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1990년대만 해도, 용대2리는 백담사가 위치한 마을이라는 것 외에는 인제지역에서도 살기 힘들고 오지인 산촌 마을에 불과했다. 이런 보잘 것 없던 빈촌이 지금의 마을로 발전하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담사에서는 어려운 마을 돕자고 버스사업권을 넘겨주었고, 마을에서는 버스 운영 수익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민 일자리를 늘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치는 마을로 살려냈다. 주민들은 황태를 비롯해 인진쑥 치커리 등을 특산물로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유통망을 확장하면서 판매증대를 이루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마을로 발전했다. 여기에는 서로를 한 식구처럼 여기는 공동체 의식과 용대2리 이름을 달고 전국에 판매되는 특산물은 품질이 최고이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고집스러움이 깔려 있다. 마을에서 진학 장학금-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백담마을은 이들 공동체기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했다. 주민들이 단합하는 계기도 됐다. 예전에는 마을 회의나 행사 때 120명가량 참여했던 주민들은 기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분배하자 요즘에는 200여명이 참여해 마을 운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마을총회

## 사업의 성과

매달 초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이뤄진다. 용대향토기업의 최고이사결정기구 또한 마을총회다. 반장과 개발위원, 감사로 구성된 임원회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총회에 상정돼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한 해 순전히 마을을 위해 쓰는 예산은 2012년까지만 해도 2억500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이를 4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별도로 버스 발전기금을 적립하는 외에도 마을주민의 적십자회비나 주민세를 공동으로 지출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 외에도 ‘정착지원금’을 운영한다. 마을에 입주해 6개월만 지나면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3년이 지나면 마을주민들과 똑같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가구당 3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

일자리가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시로 떠났던 마을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효과를 보고 있다. 2009년 303가구 668명에서 2013년 315가구 678명으로 인구가 늘었다. 연령층도 40~50대가 주축으로 일한다. 노인비중은 군인가족을 제외한 450명중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연령대가 젊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제법 많아 활기찬 마을로 변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만 80여명이고, 중고생까지 합치면 120명에 달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마을 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부진아를 이끌어주는 선생님도 초빙해 아이들의 공부를 책임져 준다. 또 백담마을 어린이 도서관 솔방울은 매달 둘째 · 넷째 토요일 오후8시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의 영화를 소개하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백담마을이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운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마을기업 예비 활동가, 연구가, 학자, 외국의 관련 공무원들이 줄을 잇는다.



동시교실



### 설득과 소통으로 따뜻한 공동체 이뤄

백담마을 주민들이 지금의 마을공동체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설득과 소통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기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생겨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은 많은 회의를 통해 설득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지를 설명해 나갔다. 결국 이런 노력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 이를 실천해 나갔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다.

###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백담마을

백담마을 주민들은 지금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이다. 또 하나의 마을공동 사업을 만드는 것이다. 저소득층·60세 이상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판매장 옆에 황태, 마가목 등을 가공하는 맑은터 가공공장을 지었다. 이곳이 가동되면 지역민 고용으로 일자리 및 소득창출 등의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백담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 인터뷰

정래옥  
용대2리 이장

# “수익은 나누기보다 재투자하는 게 원칙”

“마을기업을 만들 때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첫해부터 흑자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의구심을 불식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래옥 이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했다.

“처음에는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마을 일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정 이장은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해시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냈다고 했다.

특히 마을도 이제는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해시키는 게 힘들었다. 마을사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마을사람들이 얻는 자부심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다.

한 때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막연히 백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 의지했던 가난한 마을에서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을로 변했다는 것에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주민잔치

아직도 주민 간 이견은 있지만 이를 많은 대화를 통해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 진행해 나가면서 이웃 간 견해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사업타당성을 다 같이 고민하고 이를 회의에서 논의해 보다 나은 안을 도출해 나갑니다.”

그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수익이 생기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마을공동체기업의 성공은 주민참여형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충남 서천 내남마을 은빛도우미

## 핵심 키워드

### 공동식사 등 노인들의 편의 제공

- 열악한 농촌노인 생활안전 멘토링 사업 전개
- 은빛도우미 사업으로 공동 급식 실시
- 2인 1조로 어른들 식사수발과 청소 도와
- 마을주민 공동부담으로 공동급식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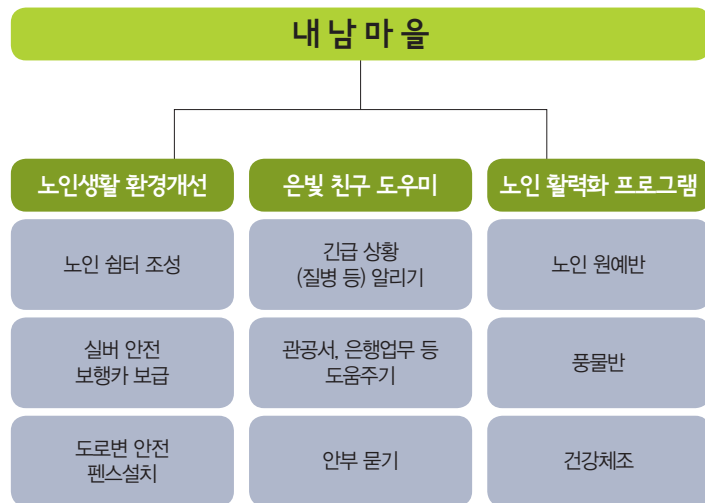
###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 만들어

- 마을 화합과 소통에 큰 시너지 효과
- 노인도 분담금 부담으로 자신감 회복
- 이웃 마을에도 노인생활안전 사업 전파
- 외지 나간 자녀들도 안심하고 생업 전념

## 개요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남리 마을은 40여 가구의 조용한 마을이지만 정작 벼농사를 짓는 가구가 4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농가는 기계화 된 벼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다.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 고향을 지키는 노인들뿐이다. 하지만 이 마을은 노인들에겐 더 없이 안전하다. 마을 스스로 구축한 농촌노인 생활안전 멘토링의 본 고장이기 때문이다. 내남마을은 ‘은빛 도우미’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 어른들에게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 등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원은 끊겼지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어른들을 봉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내남리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마을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원래 마을이란 테두리 안에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보살핌은 당연한 기능이었던다는 것이다.

충남 서천군  
내남마을  
은빛도우미



### 농촌노인 생활안전 멘토링 사업 전개

서천군 기산면 내남리에는 총 40가구에 6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중 노인의 숫자는 34명. 60대 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70~80대 어르신들이다. 이미 90세를 넘긴 어르신도 3~4명 계신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실제로 내남리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실제 가구 대부분이 노인들뿐이다. 하지만 이 마을의 어르신들은 삶이 고달프지 않다. 다른 농촌처럼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 오래된 마을이라 이웃이 정겹고 마을의 인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촌노인 생활안전 멘토링 사업 때문이다. 이 사업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은빛친구(노년층)와 도우미(젊은층)가 결연을 통해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을 돌봐주는 일로 원래 농촌마을에서 전통적인 어른모시기가 '사업화'된 것이다.

내남마을은 이 사업으로 재단법인 지역재단이 주최하는 전국지역 '리더상'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활동주체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내남리 마을은 농촌노인 생활안전 멘토링 활동으로 농촌공동체 마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은빛도우미 사업으로 공동 급식 실시

하지만 내남마을 사람들은 진작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원래 시골 마을이 다 그렇듯 노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 협동작업이 기본이 되는 농촌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집으로 가봐야 혼자 사는 노인들이어서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내남마을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어



내남리마을회관

떻게 식사를 제공할까를 궁리하던 중에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은빛도우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내남마을은 이 사업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옆의 구 회관을 리모델링해 작은 식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하지만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센터의 지원금은 식당 구조 변경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보조 지팡이 구입과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 바’ 설치자금으로 대부분이 소진됐다.

## 2인 1조로 어른들 식사수발과 청소 도와

노권래 이장을 중심으로 노인 원예반, 풍물, 건강체조 등 생활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가를 즐기으로써 소외감과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2명이 한조로 3개조를 나누어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직접 찾아가 식사수발은 물론 청소도우미 역할도 했다. 이장 부인인 최정옥씨는 이런 활동을 매일 기록해 일지를 만들었다. 그 이름이 ‘은빛 도우미 일지’인데 이 기록을 보면 내남리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날그날 한 일은 물론이고 식사를 배불리 마치고 예쁘게 웃음 짓는 할머니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등이 그대로 적혀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은빛도우미 사업이 평가를 받아 ‘지역 리더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렇게 1년을 지내고보니 어른들도 좋아하고 마을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특히 도우미로 참석한 젊은 층에서 의무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이 생기면서 마을 활동으로 자리 잡아나갔다.



## 마을주민 공동부담으로 공동급식 지속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었다. 당초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때 그 사업비만으로 한시적으로 할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식사재료비 등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 젊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사업을 진행했다. 어른들도 손수 밭에서 기른 농작물을 들고 나오셨다. 그러나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횡수를 줄여야 했다. 바쁜 농사일을 제쳐놓고 어른들 식사를 위해 마을로 돌아오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횡수는 줄었지만 마을이나 개인적인 행사가 있거나 하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공동체 역할은 지속되었다. 식사 횡수를 줄였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안정하게 모시는 데에는 1년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외부 지원 없이 꾸려온 것이 2011년부터이니 벌써 3년이다.



공동급식

## 마을 화합과 소통에 큰 시너지 효과

내남마을에서 은빛 도우미 사업이 성과로 발현된 것은 마을 화합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이장이 농업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편리해졌다. 특히 내남마을의 16가구가 독거노인이 사시는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농촌의 고민인 ‘노인 고독사’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됐다. 내남마을은 비상연락망이 좀 특이하다. 전 가구의 비상 전화연락망은 물론 외지에 따로 나가 사는 자손들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다. 노인들이 하루나 이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젊은 도우미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안부를 확인한다. 집이 비어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연락해 어른들의 소재를 파악한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큰 걱정을 덜게 됐다.

## 사업의 성과



체조교육

### 노인도 분담금 부담으로 자신감 회복

재원 마련의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월해졌다. 아직도 젊은 사람이나 여유가 되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걷는 경우가 많지만 연말이면 마을 예산을 책정할 때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금의 규모와 부족분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적은 금액이나마 분담해서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 부담 없이 식사하던 어른들이 언제부터인지 참석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형편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내는 식사를 하기가 미안한 어른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후론 적은 금액이라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더니 참석률도 좋아지고 어른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이렇게 사업이 정착되니 자녀들도 고향 집에 다녀갈 때마다 어른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 스스로 공동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내놓기도 한다. 가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게 되면 자녀들이 마을을 찾아와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50만원을 주기도 하고 10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기도 한다. 이런 기금은 잘 모았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다 보니 이제 마을 살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간다.

### 이웃 마을에도 노인생활안전 사업 전파

내남마을의 농촌노인 생활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다른 부락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이장단 회의 때나 이장 교육을 할 때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가 된다. 가까운 외남리는 은빛 도우미 기능은 없이 마을회관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행사를 최근 시작했다. 내남리에서 메뉴 만들기 등을 배워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 보기도 한다.

지난 11월 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감장을 했다. 이장 부부가 농사



활동교육 및 보조구활용교육

를 지은 배추를 내놓고 또 다른 이가 농사지은 고추를 가져왔다. 어떤 이는 무와 채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내남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 할 일 정도로 여긴다. 이웃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이웃사촌이자 자녀라는 인식이다. 동네 어른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아버지처럼 생각된다는 것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백부, 숙부고 고모, 이모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 외지 나간 자녀들도 안심하고 생업 전념

내남마을의 비상연락망은 조금 특이하다. 가가호호 연락처가 기재된 것은 다른 마을과 비슷하지만 비상연락망에는 외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의 연락처도 빼곡히 적혀있다. 내남리 특성상 노인들이 홀로 거주하시다가 며칠 안보이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어른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또한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비상 연락망을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되자 어른들만 홀로 남기고 외지로 생업을 찾아 나선 자녀들도 안심이 된다. 비록 옆에서 모시지는 못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 살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는 마을 사업에 외지의 자녀들도 관심을 갖고 임하는 등 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을에서 해주다 보니 마을 사업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고향에 한 번 다녀갈 때도 꼭 다른 어른들까지 찾아뵙게 된다.

## 인터뷰

노권래  
기산면 내남리 이장

# “마을에서 노인들 안전하게 모셔야지요”

“그냥 동네 어른들 모시는 일이에요. 별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저 밥 한 끼 챙겨드리고 밤새 안녕하신지 안부 여쭙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 산다면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고 했을 일이지요.”

노권래 내남리 이장은 마을사업을 묻자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다. 그저 예전의 농촌이 그랬듯이 동네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지로 자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어른들을 마을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노 이장은 만년 이장이다. 올해 60을 갓 넘긴 나이지만 이 마을에서는 ‘막내 꽃청춘’이다.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보니 8년간 이장 생활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장을 맡은 지 3년 됐다.

“서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마을회관으로 어른들 식사하실 수 있게 쌀도 보내주고 전기료 등도 지원해줍니다. 회관도 새로 지으면서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멘토링활동

노 이장은 군에서 해주는 지원이 마을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도 있었다.

노 이장은 “마을 회관에서 대부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난방비 지원이 적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지내는 게 안타까워요. 특히 겨울엔 집에 가서서도 보일러도 안 틀고 조그만 전기장판으로 지내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겨울만이라도 마을회관에서 밤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해요.”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내 부모처럼 정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직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전북 완주 삼례읍 자운영학동마을

## 핵심 키워드

### 홀로 된 노인들의 안전 생활 보장

- 독거노인 경로당에서 겨울철 공동거주
- 마을 단위로 노인들의 공동급식도 실시
- 마을주민 공동출자로 가공센터 설립,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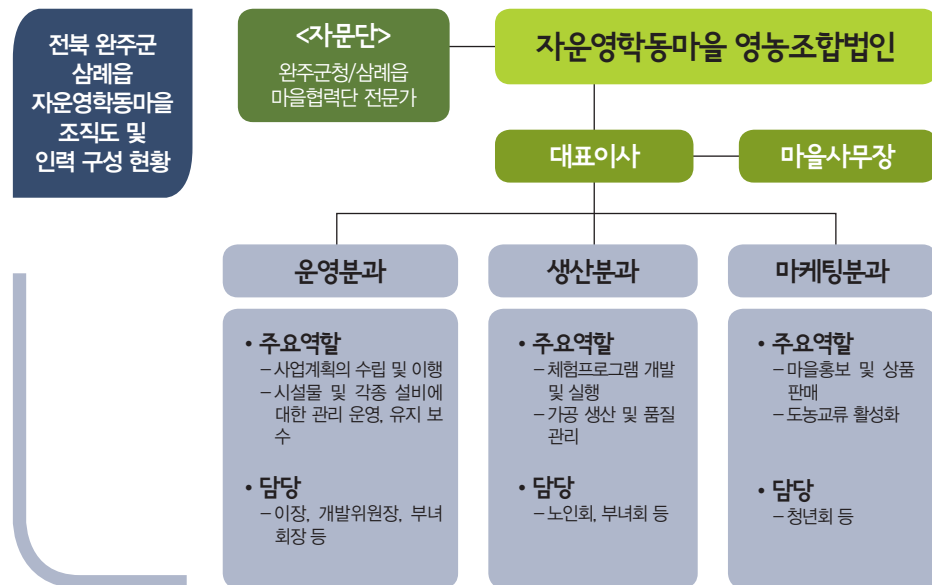
### 안전사고 예방-일자리 창출 등 생활 개선

- 겨울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동출자 조합에서 스스로 일자리 만들어
- 말린 나물 등 로컬푸드 판매로 수입 창출
- 마을 발전에 능동적 참여 등 분위기 개선

## 개요

농촌의 마을공동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각 마을의 환경과 특성에 맞춰 스스로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자운영학동마을은 작은 부락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스스로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다.

삼례읍은 노인들의 공동급식과 겨울철 공동 거주를 마을 단위에서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독거노인 경로당에서 겨울철 공동거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밤이 일찍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시골의 저녁은 더 일찍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도시에서는 한창 퇴근길을 재촉할 시간이지만 농촌의 저녁은 벌써 내일을 위한 단잠을 준비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석전리 학동마을 경로당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의 독거노인들로 2013년 12월부터 같이 합숙을 하는 할머니들이다.

삼례읍에서는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급식 사업을 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거주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 이 마을은 실제적으로 30가구가 사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가구이다. 이런 형편이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겨울 동안은 따뜻하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같이 잘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농촌에서는 읍 단위를 빼고는 대부분 노인세대들이 주를 이룬다. 가족이 함께 사는 노인들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아침에 마을회관으로 나오면 저녁에야 잠을 자러 집에 간다. 식사는 회관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고 저녁에 잠만 자러 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도 전기세 등이 아까워서 불도 켜지 않고 보일러도 가동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몸 하나 누일만큼 작은 전기장판 한 장으로 길고 긴 겨울밤을 혼자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의 경우 겨울나기가 가장 힘들다. 눈이라도 내리면 빙판길에 낙상 사고를 당하기 일쑤고 한 겨울에도 차가운 곳에서 지내니 건강이 더 나빠진다. 이런 위험을 없애고자 만든 제도가 독거노인 공동 숙식사업이다.

회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세상 참 좋아졌지. 겨울에 따뜻하게 잠자라



독거노인 공동거주



마을가꾸기

고 읍에서 회관 전기세 등 경비를 제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지 않아도 적당한 밤이 싫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하니 좋다”고 말했다.

### 마을 단위로 노인들의 공동급식도 실시

삼례읍에서는 공동주거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공동 급식도 진행한다. 대부분 마을단위로 진행되는데 보통 월 4~8회 정도 급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수치일 뿐 대부분 노인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군이나 읍에서 노인들이 드실 쌀 등은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드시는 부식도 대부분 마을에서 조달한다. 김장도 마을 단위로 이미 담그고 집안 행사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도 어른들의 식사를 챙긴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단위가 가정이라기보다는 마을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 마을주민 공동출자로 가공센터 설립, 운영

석전리의 마을회관에서 공동거주 하는 할머니들은 모두 마을공동체인 자운영학동마을영농조합의 조합원이자 일꾼들이다. 이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노인들을 위해 밭작물을 이용한 가공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을 설립할 때도 온 마을 사람들이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신의 형편대로 출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고 읍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자운영 가공센터를 설립했다. 자운영학동 가공센터는 2011년에 준공한 45평 규모의 건물로서 즉석 도정시설, 착유기, 튀김기름, 포장기계, 사무실 등이 있다.

가공센터 설립 이후 2007년부터 어머니들의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직접 만든 조청과 김부각 등을 만들어 출하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를 거

의 쓰지 않고 자운영 꽃 거름을 사용한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자운영 쌀은 정부수매가 끝나고 난 뒤 남은 쌀을 매입해 시기별로 도정을 해서 소포장 판매 한다. 이외 다양한 생산 시스템으로 마을의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겨울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인들의 겨울철 공동거주 사업은 홀로 차가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노인들의 애로 사항을 마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우선 마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서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할머니들은 겨울철 갑작스런 날씨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노인 공동거주 제도의 시행으로 고독사 등 각종 사건사고 등에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됐다. 특히 각자의 집에서 멀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이웃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 등의 요소를 떨쳐버릴 수 있다.

### 공동출자 조합에서 스스로 일자리 만들어

자운영학동 마을공동체의 장점은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일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출자를 한 주인이면서 일꾼인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작물로 어머니들이 만들고 없는 작물을 사서 가공하고, 공장에서는 교대로 일하는 인원이 10~12명 정도이다. 날마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공센터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조합원 어머니들이 순번제로 일을 한다. 하루에 일당 3만5000원을 받는다. 매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사업의 성과



자운영 학동 가공센터

시골살림으로 하루 일당 3만5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 70세를 넘은 노인들이 하기에는 괜찮은 일자리다.

뿐만 아니다. 자운영이라는 마을 브랜드를 이용해 주변 로컬푸드 판매점에 여러 가지 작물을 판매한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직접 생산한 콩, 깨, 등의 작물도 있고 옛기름을 활용한 조청도 있다. 참기름 들기름도 빠질 수 없다.

### 말린 나물 등 로컬푸드 판매로 수입 창출

이렇게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상품만 파는 게 아니다. 할머니들이 비탈 밭에서 조금씩 농사지은 작물들도 소량 포장해서 내놓기도 한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은 생산자 표기란에 직접 농사를 지은 할머니들의 이력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렇게 포장이 되면 조합에서 실어다가 인근 로컬푸드 판매점으로 가져다준다. 생산 가공은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판매는 로컬푸드 판매점에 위탁하는 구조다.

로컬푸드에 상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GAP에 맞춰야 하고, 제초제 사용 안하고 완주 군내에서 생산한 것이면 자격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완주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생산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나간 상품은 하나씩 팔릴 때마다 생산자 표기란에 기재된 할머니들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고 일주일 단위로 정산되어 할머니 통장으로 약간의 수수료가 제하고 자동 입금된다.

자운영학동마을 사무국장으로서 온지 1년여 됐다는 주영덕 국장은 “콩, 말린 나물, 옛기름, 쌀 등 장기간 나눠도 상할 위험이 덜한 상품을 위주로 하니까 반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수량 조절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콩이 많이 나올 때는 어머니들에게 이것은 조금 나두었다가 추워지면 파시라고 귀뜸해드린다”고 전했다.



학동경로당

## 로컬푸드 판매점 늘면서 마을매출도 신장

이렇게 자운영학동마을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2013년 약 8000만 원 정도다. 2012년 4000만원 정도였으니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것은 최근 로컬푸드 판매점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인들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인근에 용진로컬푸드나 전주 효자동 로컬푸드 등에서 꾸준한 판매 신장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또 봉동에도 로컬푸드 판매점이 생긴다고 하니 판로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

## 마을 발전에 능동적 참여 등 분위기 개선

자운영학동마을이 발전하기까지 갈등도 있었다. 노인들이 주체가 돼야 하는 사업들인데 대부분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게 문제였다.

초창기에는 조합의 일을 결정할 때도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시에는 바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황을 공유하는 과정과 시간이 미진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차츰 회의의 중요성도 서로 인식하게 되었고 조금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민주적인 마을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이 생산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마을사람들이 정하면 일이나 하면 된다는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그 주장대로 주체적으로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조합원으로 변모했다.

자운영학동마을은 현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자운영마을 어른들이  
실수 있는 정자

대표자: 김남길 이장 / 주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신수로 70-1  
연락처: 063)291-8889 / 홈페이지: <http://www.자운영학동마을.com>

## 인터뷰

김남길  
자운영학동마을 대표  
석전리 이장

# “마을공동체, 주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룬 결과”

“해마다 겨울이 되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조금 안심입니다. 노인들이 겨울 저녁에 추운 곳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주무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요. 다행히 올해에는 읍에서 지원을 해줘서 노인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김남길 석전리 이장이자 자운영학동마을 대표는 마을 어른들의 잠자리가 해결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다. 이 마을은 40여 가구에서 10여년 만에 29세대로 줄어들었다. 10여 가구가 동네를 떠난 것이다. 이중 대부분이 노인들만 사는 가구들이 많다. 독거노인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주무시는 분들만 해도 7~8명이다.

“정해진 숫자는 없다. 그저 자유롭게 모인다. 집에 일이 있으면 집에서 주무시고 또 주말에 자녀들이 오면 집으로 가시기도 한다. 그저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지내면 혹시 모를 위험에서 안전하고 외롭지 않기에 좋은 것이다.”

김 이장은 이 마을로 들어온 지 5년이 채 안됐다. 올해 64세로 농촌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인 것이다. “아직 젊은 편이에요. 우리 마을은 나이 많으신 분이 많지요. 때문에 어찌다가 하루 이틀 안보면 걱정이 됩니다. 혹여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할아버지들은 모두 집에 가족

이 있어서 올해는 할머니들만 모여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자운영학동마을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은 마을 분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없었다면 참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런 믿음은 오랜 시간동안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생긴 신뢰예요. 그렇다 보니 한 개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마을을 위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농촌이 공동체 마을이었기에 공동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공동체의 유전자가 이미 농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농촌에서의 작업 방식이나 삶이 협동과 공동이라는 개념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전남 나주 남평농협 9988봉사단

## 핵심 키워드

### 9988봉사단 활동으로 지역노인 돕기

- 농부병 치료하던 수지침봉사단 확대 개편
- 봉사단 190명이 지속적으로 결연가정 찾아
- 김장김치 1000포기 전달 등 봉사 팔 걷어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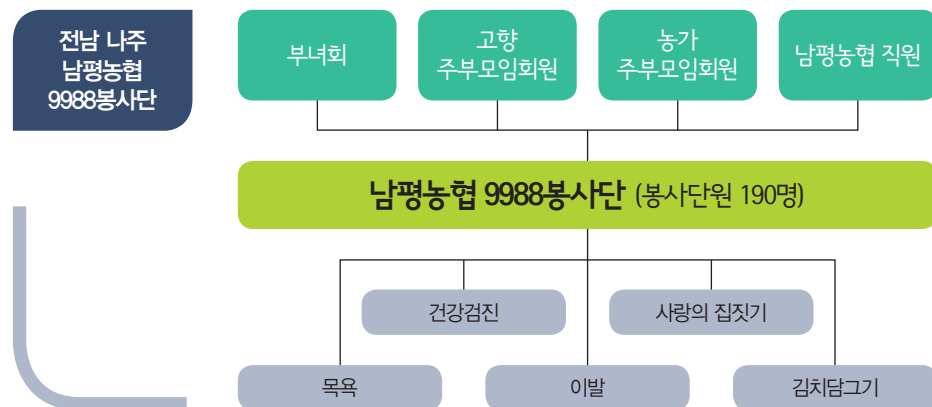
### 안정적인 지원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화 필요
- 지역 주민·조합원들 자발적 참여 확대
- 소외받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관심 고조

## 개요

백두대간이 남으로 줄달음하다 잠깐 서남쪽으로 뻗어 빛어낸 노령산맥, 그 끝자락 금성산 아래 펼쳐진 드넓은 평야와 큰 강 하나가 궁합을 이뤄 동지를 튼 곳. '천년고도 목사골' '작은 한양'으로 불리는 땅 나주.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나주를 '금성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영산강이 흐르니 도시의 지세가 한양과 비슷하고 예부터 이름난 인재가 많이 난 곳'이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유서 깊고 축복 받은 땅 나주에는 남평농협과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된 '9988봉사단'이 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9988봉사단'이란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집을 찾아 안부를 묻고 집안청소와 빨래 등 봉사활동을 벌인다. 이들이 바로 '9988봉사단' 대원들이다.



### 농부병 치료하던 수지침봉사단 확대 개편

남평농협의 '9988봉사단'은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이 적지 않는 데다 이들을 보살피는 손길이 부족해 남평농협 직원과 부녀회장 등이 한 팀이 돼 노인들을 보살피는 봉사대다. 9988은 “아흔아홉(99) 살까지 팔팔(88)하게 사세요”라는 뜻이다.

봉사단은 지난 1992년부터 매년 3~4개월씩 야간에 수지요법으로 농부병을 치료하던 남평농협 수지침 봉사대가 시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자 수지침 봉사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 외로움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2005년 3월 '9988봉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공식 출범했다.



독거노인 봉사



9988목욕봉사

### 봉사단 190명이 지속적으로 결연가정 찾아

남평농협 부관홍 상무는 “홀로 사는 노인이 돌아가셔도 주위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며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만든 봉사대”라고 설명했다.

봉사대는 당시 188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보살피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봉사단원으로 부녀회장을 비롯해 고향주부모임회원, 농가주부모임회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현재는 봉사대원 190명이 308명의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대원들은 4명이 한 조가 돼 사전에 파악된 관내 무의탁 노인을 나눠 맡게 된다.

주요활동으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결연가정’ 찾아보기다. 홀로 되신 노인들을 봉사대원들이 결연을 맺고 잘 계신지 문안 인사를 겸해 방문하고 밀린 빨래도 해주며 집안 청소, 밑반찬 챙기기, 말벗 되어주기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상반기 중에는 목욕봉사와 식사대접을, 하반기에는 인근 병원과 연계해 건강진단도 해준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노인들에게는 봉사대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와 전화기 옆에 부착할 명찰 등을 지급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전화기만 들면 곧바로 봉사 대원에게 자동 연결되는 통신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 김장김치 1000포기 전달 등 봉사 팔 걷어붙여

이렇게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해 농협이 나선 것은 농촌에서의 농협의 역할 때문이었다. 대부분 농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일들은 농협에서 전부 해주기 때문에 노인들은 농협에서 업무의 대부분을 보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남평농협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 때문인지 독거노인들을 위해 남평농협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9988봉사단은 지난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가 홀로 사는 노인 300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김장을 담그는데 사용한 배추 1000포기는 농업인 윤영준씨(65·나주시 남평읍 남석리)가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이런 봉사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2006년에는 KBC광주방송이 주최한 ‘좋은이웃 밝은동네’시상식에서 버금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제2회 농협문화복지대상을,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봉사단의 우수활동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남평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과 흑자 경영 등 전국 최우수 농협 가운데 한 곳이다.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화 필요

봉사대원들의 소망은 9988봉사단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법인화에 필요한 자본금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에 나섰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6억9000만원. 목표액에 비해 3억1000만원이 모자란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 1000원에서 3만원까지



남평농협의 김장김치 담그기

## 사업의 성과



주민참여

봉사단체좌로 매월 70여만원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8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란다. 이 목표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평농협이 나머지 분을 이번 회기에서 보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숙원이었던 사단법인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초에 10억원이 목표였지만 8억원으로도 법인 작업이 가능하다.

사단법인화를 위한 조직구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미 조직 구성은 완료된 상태여서 법인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조직운영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봉사단 이사회를 구성해 정관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고주모, 농주모 임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 주민·조합원들 자발적 참여 확대

9988봉사단이 활동을 하면서 나주지역에는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거나 자원 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농협 직원들과 부녀회장 등이 참여 했지만 농협의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농협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기금 마련에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직원들은 급여통장에서 법인 기금마련을 위해 매달 3만원 정도를 자동 납부한다. 이는 직원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자연스러운 기금 모금운동을 확산시켰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조합원부터 농사를 짓는 조합원까지 참여해 나주 지역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 소외받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관심 고조

남평농협의 9988봉사단의 활동이 나주 지역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고령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 특성상 소외 받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늘어나고 있다.

남평농협은 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체의 한 기관으로서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9988봉사단이 모범이 되어 지역별, 단체별로 노인들의 건강이나 안부를 묻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9988봉사단

.....  
조합장: 최공섭 / 주소: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91 남평농협  
연락처: 061)331-2007 / 홈페이지: www.npnh.com

## 인터뷰

최공섭  
남평농협 조합장

# “올해 안으로 9988사단법인 완성”

“올해까지 9988봉사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평농협 최공섭 조합장은 9988봉사단의 숙원인 법인화를 올해 안으로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본금 10억원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약간 수정된 것이다. 목표액을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단법인을 출범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인전환에 필요한 금액을 모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부대학에서는 떡국을 뽑아서 판매하거나 감장도 도와주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

“농촌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돌아가신지 일주일 후쯤 고독사로 발견됐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최 조합장은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주민들이 관심 갖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펴주기를 바랐다.

이어 그는 “요즘 지역 경제가 침체돼 불우이웃을 돕는 손길이 줄어 아쉽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동체가 가꾸어 가는 교육/문화 이야기

충북 단양 | 한드미마을

울산 울주 | 소호산촌유학센터

전남 곡성 | 죽곡농민열린도서관

충남 서천 | 여우네 도서관

전남 곡성 | 웃음만땅지역아동센터





#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 핵심 키워드

### 농촌유학으로 체험마을 기초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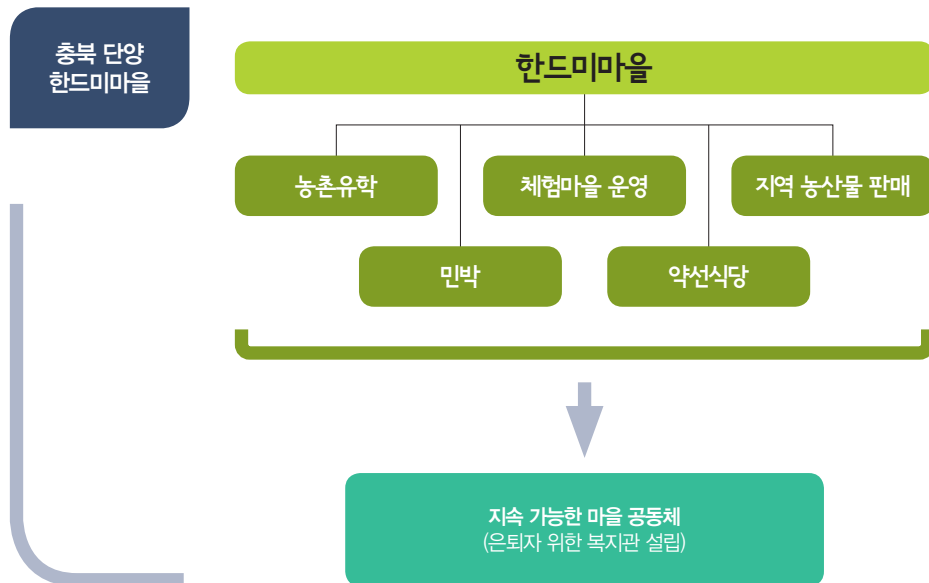
- 학교지킴이로 젊은 인적 자원 확보
- 농촌유학 시스템 도입 유학센터 운영
- 1등 체험마을 건설 위해 강력 추진
- 농촌 친환경마을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 진정한 마을 공동체 모습 추구

- 지역 경제에 보탬 되는 공동체 실현
- 은퇴자 위한 복지관 설립 토대 마련
- 후손까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계획

## 개요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 2리 소백산 자락에 있는 한드미마을은 우리나라 체험 마을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다. 벌써 그 뜻을 세우고 노력한 게 14년.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많은 일이 벌어졌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서로 흘린 땀방울이 열매로 영글어가고 있다. 한드미마을은 원래 부터 대한민국 1등의 농촌체험마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그 꿈은 잠시 미뤄야만 했다. 한드미마을이 초창기 사람들을 모아 일을 할 때였다. 이미 마을은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젊은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할 일은 태산인데 일할 사람이 없었다. 어렵사리 마음을 맞춘 사람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났다.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 학교지킴이로 젊은 인적 자원 확보

한드미마을이 '대한민국 1등 농촌체험마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 없이는 불가능한 꿈이기에 젊은 사람을 오게 해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귀농을 하려고 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문제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고서 학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지킴이를 시작했다. 한드미마을은 체험마을 규모를 줄이고 리모델링을 하고 책상이랑 컴퓨터를 놓고 아이들을 모았다. 지난 2006년부터 학교지킴이를 하게 되어 지금 8기 모집까지 7년차가 되었다. 그동안 첫째 12명이던 농촌유학생들이 지금은 48명이나 된다.

### 농촌유학 시스템 도입 유학센터 운영

한드미 농촌유학센터는 일본의 산촌유학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2006년 당시 한드미마을 방문한 김재현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로부터 일본의 농촌유학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처음 일본에서 농촌유학을 통해 젊은 사람이 유입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한드미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드미 유학센터는 근처 가곡초 대곡분교에서 아이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부터 수업이 진행된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이 마을로 유학 온 학생들은 소백산 패러글라이딩, 계곡 래프팅, 동굴 체험 등 자연을 활용한 체험 활동은 물론 원어민 영어 교육, 컴퓨터 실습 등 도시 수준의 학습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농촌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입을 모았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만 농촌에 오면 생각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풀을 하나 뽑더라도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고 상상력을



농촌유학센터  
여름캠프

나름대로 동원하게 된다. 이곳은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이자 공부터이다. 유학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한드미마을로 들어왔다. 벌써 유학한 아이들을 따라 마을로 들어온 귀농한 사람들이 12가구가 넘는다.

### 1등 체험마을 건설 위해 강력 추진

유학센터의 성공은 한드미마을이 본격적인 체험마을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드미마을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드미마을은 2003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돼 2억5000만 원을 들여 마을주변 조경사업을 벌이는 등 농촌체험 마을로 시작했다. 이 마을은 30가구가 공동 산림문화회관, 전통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뗏목 타기, 감자를 땅속에 넣어 구워먹는 삼굿구이, 농사체험, 산나물채취 등 80여 개의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자연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기에 최적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평균 전국에서 3만여 명이 방문해 정겨운 농촌체험을 하고 있다. 한드미마을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체험행사가 계절별로 세분화 되어 1년 내내 이 마을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봄에는 냇이 캐기, 손 모내기와 옥수수 심기, 황토 염색, 여름철에는 계곡에서 뗏목 타기와 물고기 잡기, 수생식물 관찰체험, 봉숭아 꽃잎 물들이기, 별자리 찾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가을에는 고구마 캐기와 밤 줍기, 가을걷이가 한창인 논에서 메뚜기 잡고 새참 먹기를 체험한다. 겨울에는 연날리기, 눈썰매타기, 팽이 만들기, 가죽공예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공예, 솟대 만들기, 두부 만들기, 동굴체험, 5일장 체험 등은 이 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이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체험객



## 농촌 친환경마을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

한드미마을은 농촌 친환경마을 운영관리시스템 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운영주체 교육 12회, 시스템 전문가 과정 9회 교육을 거쳐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시스템을 보유하기 위해 목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로 고객응대의 체계를 마련하여 모집, 체험시,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고객관리로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의사결정의 체계화로 인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직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 노무관리의 체계화로 인한 기업의 체계를 갖추고 더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로 체험구조의 수익률을 높이고 단기적인 체험객의 방문보다는 소규모의 지속적인 체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체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익구조 개선으로 마을의 수익증대를 가져왔다.

## 식당 오픈으로 순환농업 강조

이렇게 농촌유학과 체험마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한드미마을은 식당 사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해 대형 약선식당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남들처럼 하는 식당사업이 아니다. 한드미마을에서 진행되는 식당은 한드미마을과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마을에서 농사지은 작물로 요리를 하고 그래도 남은 농작물은 소규모 포장으로 판매하면서 마을과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드미마을의 생각은 농사를 지을 때만 순환 농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순환사업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생각은 이미 구체화되어 2014년 5월에는 식당을 오픈할 계획이다. 한드미마을 사람들은 이 계획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안성의 서일농장 등을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소백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풍경

## 사업의 성과



체험학습을 통해  
감자를 캔 아이들

### 지역 경제에 보탬 되는 공동체 실현

한드미마을의 성과라고 하면 먼저 유학센터 운영으로 학교지킴이 사업이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드미마을 유학센터는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이 인근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숙소를 달리하면서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8기 모집과 함께 학부모 교실과 방학 캠프를 개최하는 등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한드미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합원이자 근로자인 지역 주민들은 한드미마을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됐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산간지방의 어려운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갈등도 많았다. 공동체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에게 수입을 나누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입이 똑같은지는 문제가 됐다. 공동체의 개념을 다시 설명했지만 다음해에는 조직 활동이 형편없이 저하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각자 불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는 영성한 공동체가 되었다. 할 수 없이 점수제를 도입했다. 일한 날과 시간을 계산해서 누진을 하는 점수제였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 점수제도 허점은 있었다. 점수제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보니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나오지 않고 노동력이 약한 사람을 대신해 투입하는 등의 방법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부녀회팀 노인회팀 환경미화팀 등으로 팀을 나눠서 독립채산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월급제의 형태로 바뀌었다.

### 은퇴자 위한 복지관 설립 토대 마련

이제 한드미 새로운 꿈을 꾸다. 마을에서 일한 사람들이 은퇴하고도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꿈이다. 이 마을에 일하던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해도 스스로 갈 곳이 바로 있으니 노후걱정 안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는 꿈이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입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 특산물도 판매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로컬 푸드 사업이었다. 그래서 한드미마을은 식당을 짓고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소포장 해서 로컬 푸드로 판매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다시 그 수입을 환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직 남은 과제다.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식당도 2014년 5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아직은 체험객과 학생들의 식사만 하고 있지만 내년 정식 오픈을 하게 되면 단양에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생각이다.

### 후손까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계획

한드미마을이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는 무늬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생태적 순환이 가능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드미마을이 20~3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는 물론이거니와 후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자: 정문찬 / 주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길 30-12  
연락처: 043)422-2831 / 홈페이지: www.handemy.org

## 인터뷰

정문찬  
한드미마을 대표

#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 찾는 여정이지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먼저 시작해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 체험마을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문찬 한드미마을 대표는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다. 자신이 낳고 자란 고향마을에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고향 마을이지만 마을 어른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을회관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한분 한분씩 설득하기를 14년이다. 이제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마을 어르신들도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응원해 준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의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가 마을 어른들에게 약속한 노인복지관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한드미마을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은퇴 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복지관을 짓겠다고 약속했었다.

“내년 5월 한드미마을에 식당을 크게 오픈합니다. 단양에 관광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 수입으로 다시 친환경 농사를 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마을 구석구석에 유전자처럼 심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세계 최초로 에코 빌리지 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을 누구라도 찾을 수 있게 정리했고 식당 주방도 호텔 못지않게 청결함을 강조했다. 이런 노력은 결국 생태적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남들은 왜 많은 돈을 들여 에코 빌리지 인증을 받고 또 매년 심사를 다시 받느냐고 하지만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검증 작업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외부 어느 곳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확한 일의 진도와 성취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울산 울주 소호산촌유학센터

## 핵심 키워드

### 농촌유학으로 지역에 활력 되찾아

- 마을공동체형 농촌유학 모델 개발
- 지역아동센터 모태로 2010년 유학센터 개소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높여

### 지역 복지자원 연계한 서비스 체계 구축

- 유학생 증가로 소호분교 2014년 본교 승격
- 농가 유학으로 지역에 활력 불어 넣어
- 몸 부딪히며 사회성 기르는 데 도움
- 마을의 미래에 희망이 빛을 비추다

## 개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이곳은 상북면의 13개 법정리 가운데 가장 오지인 고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태백산맥이 굽이굽이 남으로 내려와 부산, 밀양, 청도, 경주, 울산, 언양의 변두리 접경지역에 커다란 산군을 이룬다. 그 산새가 장엄하고 경관이 수려해 ‘영남알프스’라고 불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산간마을로 일찍부터 국가적인 조림사업이 시행되어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지에서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 냈다. 농촌유학 모델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폐교 직전의 학교를 지켜내고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환경을 조성했다.

### 소호 산촌유학 월별 프로그램

- |                                            |                                                      |                                                       |
|--------------------------------------------|------------------------------------------------------|-------------------------------------------------------|
| <b>3월</b><br>봄꽃차만들기<br>밭갈기<br>마을 계곡청소하기    | <b>4월</b><br>씨뿌리기<br>못자리내기<br>산나물, 고사리뜯기<br>감자, 야콘심기 | <b>5월</b><br>모내기<br>고추, 오이 모종심기<br>산뽕잎차만들기<br>매실효소만들기 |
| <b>6월</b><br>밭에 풀뽑기<br>돌봉숭아효소만들기<br>감잎차만들기 | <b>7월</b><br>감자캐기<br>민물고기탐사<br>야영하기                  | <b>8월</b><br>캠핑하기<br>염색하기                             |
| <b>9월</b><br>가을버섯채취하기<br>동굴탐험<br>야생동물서식지탐험 | <b>10월</b><br>야콘, 고구마 수확<br>숲체험<br>여행가기              | <b>11월</b><br>배추수확하기<br>김장담기<br>딸감하기                  |
| <b>12월</b><br>메주쓰기<br>천연염색옷만들기             | <b>1월</b><br>겨울먹거리만들기<br>눈썰매타기<br>캠핑하기               | <b>2월</b><br>아궁이에 구워먹기<br>손님맞이하기<br>옛이야기 들려주기         |



### 마을공동체형 농촌유학 모델 개발

소호마을 농촌유학은 마을공동체형 유학이다. 소호산촌유학은 일반 농가에서 아이들의 유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했다. 지역아동센터가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농가에서는 정서적인 돌봄과 생활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 농가에서 농촌유학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디자인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이를 마을공동체형 농촌유학 일명 '소호형 산촌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 모태로 2010년 유학센터 개소

산촌유학은 도시아이들이 산촌학교로 전학한 후 1학기 이상 농가에서 생활하는 시골생활을 하는 체험학습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면 자연히 귀농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아이들을 따라 귀농을 실행한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지난 2008년 본격적 추진을 위해 밀양 산동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어 소호마을에서 '소호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소호분교 교사와 지역주민, 귀촌농가 등이 참여해 소호마을 산촌유학 준비모임을 8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소호마을 활동가 워크숍, 산촌유학 예비 캠프 운영들을 통해 유학생을 맞을 준비에 박차를 기했다.

지난 2010년 산촌 유학생 3명이 입교를 했다. 동주, 우혁이가 그 주인공이다. 부모참여형 6명도 소호분교로 전학해 소호마을 생활을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도시에서 소호마을로 산촌유학 온 초등학생이 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소호산촌 토요일 작업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높여

산촌유학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이다. 소호는 백운산, 고현산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산촌마을이다. 숲은 아이들에게 매일 만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숲으로 간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친구들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 숲에서 나무와 들꽃, 새들과 곤충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깨닫기도 한다.

우리 가락에 현대음악과 리듬을 접목시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는 ‘난타하며 놀자—우리는 소호 숲의 고래’ 프로그램도 재미있다. 또한 ‘우리마을조사’는 아이들이 사는 소호마을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때 아이들은 직접 마을 어른들을 만나 마을의 숨은 이야기, 전설 등을 듣기도 하고 계곡을 다니며 나무, 암석, 지형 등의 생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소호생활문화 공동체, 산촌유학 부모교육, 자연놀이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연과학수업, 텃밭 가꾸기, 밴드, 단편영화 제작,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이렇게 익힌 밴드 실력은 단연 돋보인다.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밴드를 하거나 풍물을 배우지만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도시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

### 유학생 증가로 소호분교 2014년 본교 승격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이 농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폐교위기의 분교를 되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원래 이곳은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이를 찾을 수 없는 마을로 변해갔다. 결국 이지역의 소호분교는 폐교 위기에 처했다. 누구도 어쩔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분교가 폐교되면 소득이 늘어나는 사업장이 들어서길 바라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흐름을 뒤바꾼 것은 소호산촌유학센터였다. 이 유학센터의 노력으로 마침내 폐교위기에 있던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를 구해냈다. 뿐만 아니라 산촌유학생 증가로 2014년 본교로 승격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현재 소호분교생 31명 중 4명의 토박이 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서울·경기·부산·대구·울산에서 전학 온 유학생들이다.

### 농가 유학으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

소호산촌유학센터의 유학생들은 유학센터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곳에서 지역학교를 다니는 방식이다. 학생에 따라 일반 농가나 새로 건립된 산촌유학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이때 유학을 하는 농가는 아이들이 생겨서도 좋지만 수입도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면서 상쾌한 시골의 아침을 열고, 시골 이모들이 챙겨주는 자연에 가까운 아침을 먹고 걸어서 소호분교로 간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모나 삼촌으로 부른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선생님이라는 딱딱한 호칭보다 이모 같은 친근한 호칭을 사용한다.

아이들은 지역 아이들과 똑같이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에서 공부하고, 무료로 시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배움터인 지역



소호분교 가을운동회

아동센터와 산촌유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몸 부딪히며 사회성 기르는 데 도움

소호산촌유학센터는 도시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자오락과 휴대폰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조차도 보지 않는다. 그저 누나, 형, 언니, 동생 따질 것 없이 몸으로 부딪히고 놀 거리를 찾는다. 산에서 뛰놀기도 하고, 추우면 생활관에 모여들어 바둑이나 공기놀이 등을 한다.

핵가족 시대에 혼자거나 한 두 명의 형제가 전부였던 도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선후배 모두가 뒤엉켜 형제·자매처럼 지낸다.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과정이다. 그 결과 대도시 주민 10여 가구가 소호마을로 귀촌하고, 센터를 찾는 아이들도 매년 10여명으로 늘어났다.



농촌유학센터의 풍물교육

## 마을의 미래에 희망의 빛을 비추다

소호마을이 이렇게 아이들의 유학코스를 개발하게 된 요인은 농촌 마을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당연함에서 출발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해봤지만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산골마을에서는 몇 년 지나면 사업 주체가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무슨 일을 도모하든 5~10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돌아오는 마을이 되지 않으면 생산은 물론 소비, 문화의 기능까지 마을의 모든 기능을 잃게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마침내 지역 주민들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일부에서 분교가 폐교 되면 그 자리에 동네에 경제적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변화는 일을 주도하던 귀농귀촌 그룹들과 토박이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토박이 주민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한 주민들과 어울려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한창이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가 되어 영남알프스 백운산 자락의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산촌마을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마을로 변했다.

대표자: 김수환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782-1번지  
 연락처: 052)254-0827 /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soho-sanchon>

## 인터뷰

김수환  
소호산촌유학센터 센터장

# “아이들이 돌아오면 마을이 건강해진다”

“젊은 세대의 귀촌을 활성화 해 마을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귀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했지요. 아이들이 갈 초등학교마저 없다면 어떤 젊은 부부가 선뜻 산골로 올 수 있겠어요. 결국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을 만드는 게 세대의 단절이 없는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지요.”

폐교 위기에 처했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 산골학교인 소호분교. 이곳으로 도시의 아이들이 유학을 오게 함으로써 폐교를 막은 소호산촌유학센터의 김수환 센터장의 얘기다.

김 센터장은 젊은 세대의 귀촌을 활성화해 일자리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이룬 창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 전체를 상설체험학습장과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운영하는 모델을 고민하던 그는 소호마을로 다시 내려와 소호마을을 거점으로 영남알프스 일대에 초등학생을 키우는 젊은 가족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걸음으로 선택한 방법이 지역아동센터였어요. 2010년 소호분교에 산촌유학센터를 열었고 3명의 유학생을 시작으로 출발했지요. 이후 지인들의 입소문과 알음알음으로 학생들이 늘었고 활성화 되면서 유학센터는 전교생 37명으로 발전했지요.”



소호유학센터에서 만난 개구쟁이들

이런 노력은 그가 추구하는 농촌체험마을의 교두보이자 큰 사업의 밑알이 되었다. 농촌유학 사업은 소호야생차 사업과 함께 소호산촌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생산과 소비뿐만이 아닌 문화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체험마을의 꿈이 영글어 가고 있다.

김수환 센터장은 “영남알프스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영남알프스 일대 마을에 사는 활기찬 젊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른 마을들도 소호마을처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모임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 전남 곡성 죽곡농민열린도서관

## 핵심 키워드

###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개선

- 지역 농민회 주도로 죽곡열린도서관 건립
- 유명인사 초빙 '인문학 강좌' 올해로 여덟번째
- 세대를 초월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 매김

###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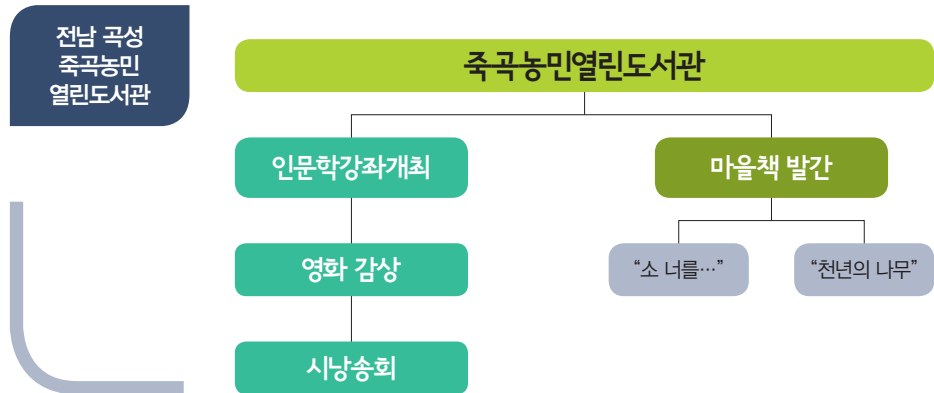
- 도서관 활동 통해 농촌 삶의 변화 체험
- 마을 주민들의 시집 '소, 너를...' 발간
- 죽곡의 역사와 애환 담은 두 번째 책도 출간

## 개요

전남 곡성군 10개 면의 하나인 죽곡은 그 이름처럼 대나무가 무성한 동네다. 죽곡은 유달리 물가에 대나무가 많이 자라난다. 곡성 자체가 보성강과 섬진강 등 무수한 물줄기를 지닌 탓이지만 특히 죽곡 일대를 휘돌아 흐르면서 골짜기마다 무성한 대숲을 이루어 놓는다. 그 대숲을 서걱이는 맑은 바람이 죽곡과 죽곡 사람들의 삶을 빚어왔다.

이런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에는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곡성군 농민회 죽곡지회가 지난 2000년대초 새로운 변화와 대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2004년 마을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문을 연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작은 마을도서관의 활발한 운영사례로 평가받아 2006년 ‘희망의 작은 도서관’ 공모에 당선되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게 됐다. 그동안 도서관은 인문학강좌를 여는 등 문화운동을 꾸준히 활동해왔고, 그 결실로 작년에는 마을시집을 발간하더니 올해 12월에는 2년여 공을 들여 죽곡마을의 역사와 애환을 담은 두 번째 책까지 펴냈다.



### 지역 농민회 주도로 죽곡열린도서관 건립

2004년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이 개관한지 벌써 10년을 맞고 있다. 도서관 건립은 죽곡농민회 2004년 총회에서 도서관 준비를 합의하고 마을 이장들이 힘을 합쳐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건립하는 도서관사업이라 다른 재원 마련이 있을 수 없었다. 농민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농민회가 주도하던 구제역 방역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원래 농민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설립을 위해 농민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다. 회원들은 도서관 준비를 위해 돌아가면서 방역 일을 하고 차량 기름 값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이렇게 바닥에서 한 푼 두 푼 모인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농민회 사무실 한쪽에서 시작한 도서관은 2006년 ‘희망의 작은 도서관’ 공모에 당선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작은 마을도서관의 활발한 운영사례로 평가받은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열린도서관에서는 여름 겨울 농한기 때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다. 혹자는 농민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전국적인 공동체 활동가부터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곡성적인’ 인물까지 등장인물의 면면도 다양하다. 도서관에서는 예전에 강좌를 소개하는 문구로 ‘농민인문학이란 이름으로 공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로 표현 한 적이 있다. 도서관은 스스로 공부하는 일이라고 했다.

농촌살이는 그 자체가 일이다. 완벽히 낮익은 단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숨 쉬고 먹는 것부터 본격 농사까지 일이 아닌 게 없다. 이때의 일이란 노동만이 아니다. 놀이, 휴식, 섭생 같은 살림살이 전부를 얘기한다. 그러니 공부는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공부 또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



죽곡농민 열린도서관



인문학강좌

## 유명인사 초빙 '인문학 강좌' 올해로 여덟번째

도서관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은 벌써 여덟 차례나 진행된 '죽곡농민열린도서관 인문학강좌'를 들 수 있다.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인문학 강좌에 각계의 유명 인사를 강사로 종종 초빙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덕분에 농촌마을 인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다는 것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농민은 누구나 이야기꾼이다.” 이 문구는 2013년 여름 농민 인문학강좌를 앞두고 내건 문구로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에 달하는 초 고령화 사회의 작은 면단위 도서관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영화감상과 책읽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 강좌의 이야기꾼들도 다채롭다. 죽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최태석 할아버지를 필두로 죽곡면 강빛마을에 거주하는 황민영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 목사동면에 사는 이재백 농민소설가, 이해채 보성다양학교장, 이남곡 전북 장수 좋은마을 대표, 서정오 옛이야기 작가 등이다.

## 세대를 초월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 매김

지난 여름에 진행된 이 강좌에서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죽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최태석 할아버지였다. 최 할아버지는 등단한 시인은 아니지만 죽곡농민열린도서관에서 지난해 펴낸 시집 '소, 너를 길러온 지 몇 해 이던고'의 표제를 장식했던 주인공이다. 그는 이번 강좌에서 시골에서 농부로 산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 한시의 세계 등을 이야기했다.

소설이나 시, 역사처럼 재미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강의가 시작될 무렵 10명 안팎이었던 마을주민은 차츰 늘어나 20여명에 이르는 등 도서관 안은 열기로 금방 뜨거워졌다. 초등학교생부터 80대의 어르신까지, 토박이부터



마을의 남녀노소에게 작은 공론의 장을 열어준 인문학강좌

귀농·귀촌인까지 다양한 부류의 마을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작은 공론의 장을 형성해갔다.

### 도서관 활동 통해 농촌 삶의 변화 체험

이제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이자 문화의 향기를 전달하는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또한 죽곡 지역주민이 하나로 뭉치는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문학강좌는 이 고장에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과 역사 등을 제대로 알게 하는 지식의 요람이자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배움과 깨달음을 전달한다. 이런 과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다.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의 생명 하나하나에서 느끼는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중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 장소적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시집과 책을 펴내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 사업의 성과



도서관 내부

### 마을 주민들의 시집 ‘소, 너를...’ 발간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의 인문강좌는 죽곡 사람들의 문화적 역량을 고취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농촌 주민들이 직접 시를 써서 만든 시집이다. 물론 이사업도 죽곡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다.

최 할아버지처럼 평생 시라곤 써볼 일이 없던 시골 노인들이 시를 쓰게 된 건 지난 2011년 전남문화재단의 문화사업 공모에 도서관의 ‘농촌 주민들의 시집 발간’이 선정되면서 부터다. 당초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시골 노인들이 무슨 시를 쓰느냐”며 반대들이 많았지만 막상 공모에 나서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들의 글을 모은 시집이 지난해 봄 발간된 ‘소, 너를 길러온 지 몇 해 이던고’이다. 여기에는 죽곡면 7살짜리 손자손녀에서부터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해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느 농촌이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골마을에서, 여느 촌부들과 다를 바 없는 시골사람들이, 그것도 88세의 할머니에서부터 7세의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5명에 이르는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시집을 펴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이 시집은 소박한 감동과 함께 지금 우리 고향의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 낭송회

### 죽곡의 역사와 애환 담은 두 번째 책도 출간

2013년 12월 초에 발간된 죽곡마을 이야기책 ‘천년의 나무’는 이 마을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이 2년여를 준비해 세상에 내놓은 책으로 제목인 ‘천년의 나무’는 이 지역의 상한마을에 사는 김택중 어르신께서 쓰신 시의 제목이기도 하다. 김택중 어르신은 이 시를 통해 이 지역 죽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놓았다. 이 이야기책 ‘천년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애환과 죽곡의 아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책이다.

### 성공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새겨야

죽곡도서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죽곡도서관 관계자는 “성공은 소수가 누리는 특권이지만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죽곡 사람들과 함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죽곡도서관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에도 즐겁게 나설 것이다. 뒤돌아보면 그 경험은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그 경험들을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삶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 인터뷰

김재형

죽곡농민열린도서관 관장

# “주민의견 수렴 등 민주적 운영이 발전 원동력”

“도시 중심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는 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촌은 인구 대부분이 노인들이시지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지닌 소중함과 가치들을 가꿔가다 보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죽곡농민열린도서관 김재형 관장은 농촌에서 깨닫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농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이 건립되면서 1만여 권의 책을 수집하고 다양한 인문학 강좌도 개설하며 농촌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이 도서관이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서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서관 운영 초창기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박이 주민들과의 교류를 강화한다면 마을공동체 복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로 잘 아는 마을사람들이어서 웬만한 갈등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책임을 맡은 도서관장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시간이 해결한다.”



하지만 그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다른 사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서관이든 지역 공동체이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도 말했다.

“정부 지원은 지속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단기간으로 보든지, 드러난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예산을 쓰는 건 언제나 부담스럽다.”

김 관장은 죽곡도서관의 성과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도서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복이었다. 죽곡도서관은 문을 잠그지 않고 24시간 개방 운영을 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긴 뭐하지만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소년이 이곳에서 마음을 고쳐먹은 사례도 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 피난처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 전국 어디에도 24시간 개방하는 공유시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죽곡도서관은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가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충남 서천 여우네 도서관

## 핵심 키워드

### 스스로 제안하고 건립해서 운영까지

- 학부모의 제안으로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 공간 마련 등 지역자원으로 도서관 건립
- 책놀이 체험-공동 육아방 등 사업 전개

### 스스로 깨쳐가는 농업농촌 교육

- 세대를 초월한 주민들의 참여 이끌어내
- 마을 사랑방 역할로 지역 문화 공간 창조
- '아이들 발길 끊이지 않는 마을' 조성

## 개요

서천군 서천읍내에서 여우고개를 넘어 오거나, 금강하구의 너른 들판을 질러 국립생태원이 들어선 길을 따라오다 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담한 도서관이 있다. 지난 2008년 11월 개관한 이 도서관은 학부모들이 제안하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 청년회 등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여우고개라는 예쁜 지명을 딴 이곳 ‘여우네 도서관’은 지역 학부모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건립해서 운영까지 스스로 도맡아 하는 체제다.

처음 발단은 마을 내에 유치원과 도서관이 없고, 유아들이 또래친구를 만들 문화시설이 없는 등 애로사항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지역의 미취학 아동교육 부담은 전적으로 주부인 어머니들이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해결 대안으로 공동육아 및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결성하게 됐다. 1년여 간의 회의 및 진행 후 비영리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여우네 도서관이다.

충남 서천군  
여우네 도서관

### 여우네 도서관

유아도서관

책놀이 체험

공동육아

### 학부모 제안으로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이곳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는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전교생이 70여명 정도이니 근방의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런 곳에 아담하고 예쁜 여우네 도서관이 생겼다.

여우네 도서관은 ‘시골 작은 마을에 아이들이 책 읽고 노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차를 타지 않으면 슈퍼마켓도, 문구점도, 학교도, 도서관도 접근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갈만한 놀이공간이 부족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논밭과 산, 집들 뿐인 아이들에게 함께 모여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농촌의 가치를 알고 지킬 수 있다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저 막연하게 바라지만 말고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에서 2008년 7월 마서면 신포리 아포마을과 공덕마을 학부모들이 제안 모임을 가졌다. 서로의 뜻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마을 이장과 부녀회, 청년회 등이 결합해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도의 공간 마련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아이들 수가 많은 아포마을(도서관 소재지) 회관에 방한 칸을 활용하기로 했다.

###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 추진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도서관을 꾸미려고 열심히 것에 감복했는지, 마을 어른들이 누룽지 공장을 하려고 했던 공간을 내어주셨다. 이 과정에 아포마을 주민총회가 열려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졌으며 길산권역사업 사무국장과 서천군 문화예술담당 공무원, 자연예술 모듬(서천지역의 예술인으로 구성)이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되어 사업의 원활한 진



여우네 도서관 내부

행에 도움이 됐다. 추진위원들은 다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견학하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용자인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서관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책을 기증받고 책장을 구비했다.

### 책놀이 체험-공동 육아방 등 사업 전개

여우네 도서관의 주요 사업은 유아도서관, 책놀이 체험, 공동 육아방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유아도서관은 인근 마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지킴이를 구성한다. 월 1회 정도 회의를 갖고 도서관과 관련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공유한다. 책놀이 체험은 외부 초청 행사 및 내부 수업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동육아방은 학부모들이 서로 순번제를 정해 운영하는데 공동육아를 함으로써 주부들의 여가 활용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사업은 미취학 아동이나 유아들이 또래 집단들과 소통하는 사회성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엄마들이 순번제로 공동 육아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무리가 없고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적은 요즘 시대에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이곳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책읽기를 지향한다.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도서대출, 책 읽어주기, 글쓰기, 북스타트운동,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작은도서관네트워크 등이 있다. 식농교육이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텃밭 가꾸기,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하기, 숲 놀이, 갯벌, 염전 체험 등의 먹거리 농업농촌교육을 말한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여우네 도서관

### 세대를 초월한 주민들의 참여 이끌어내

여우네 도서관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 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마을의 어른들과 세대를 초월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부 요인에 의거한 사업이 아닌 내부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도서관이며, 서천군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건립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대부분을 주민들이 마련하고 헌신했다는 점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 마을 사람들은 “좁은 집에다 책 쌓아놓을 일 없어 좋다”며 집에 있는 책을 몽땅 내놓았고 일부에서는 억척을 떨어가며 여기저기 헌 책들을 얻으러 다녔다. 책은 모으고 기증받을 수 있었지만 책장과 운영비 마련 등이 쉽지 않았다. 일이 잘 되려고 했던 것일까.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곳곳을 꾸며주었고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었다. 마침내 2008년 11월 15일, 주민들이 만든 마을도서관이 개관됐다. ‘여우네 도서관’은 주민공동체 도서관을 지향하며 자발적인 독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도서와 놀이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누구나 오가며 편히 쉴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이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고 있다.

### 마을 사랑방 역할로 지역 문화 공간 창조

2008년 7~8월에 ‘아이들이 만드는 도서관’을 준비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서관 내부에 걸 커튼을 천연염색하고 아이들이 그린 ‘내가 꿈꾸는 도서관’ 그림과 아이들이 짚은 손바닥 무늬가 그 커튼의 도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손바닥이 찍힌 액자도 현관에 걸려 있다. 그때 엄마의 등에 업혀 함께 도서관 건립을 준비했던 간난장자들이 내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다. 도서관이 생긴 다며 작은 손가락으로 신나게 염색 천을 주무르고 설레는 맘으로 손바닥 찍기를 했던 아이들이다. 지금은 도서관의 어엿한 주인으로 성장해 지킴 이도 하고 아기들에게 책도 읽어 주고 있다.

**‘아이들 발길 끊이지 않는 마을’ 조성**

또한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 조성됐다는 점도 있다. 마을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공간, 그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주된 이용객이다. 아이들은 특정한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며 마을과 도서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모이는 마을’이 되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도서관이 자리한 후부터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천군 곳곳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으면서 ‘아이들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특히, 마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식생활교육과 북스타트 사업의 시발점이자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나, 활기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민 참여 유도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여우네 도서관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책을 빌려주고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와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독서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도서



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는 교육 문화 놀이공간으로 아기들과 엄마들에겐 놀이방이자 엄마들의 수다방으로, 어르신들에겐 마을의 사랑방으로 역할하면서 도서관을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우네 도서관이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인한 도서관 운영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우네 도서관은 사업기획 및 진행, 도서관 운영 인력과 재정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하고 마을 부녀회, 청년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 협소한 공간 해결 위해 증축 계획

여우네 도서관은 매달 꾸준히 새 책을 구입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젠 서가를 둘 곳이 부족할 지경이어서 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우네 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도서관 옆쪽으로 증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우네 도서관이 이룬 기적은 좋은 상상력이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상상이 만들어 낸 도서관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여우네 도서관은 여기서 뛰어 놀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신랑,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 처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마을 명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는 여우네 도서관

## 향후 계획 및 조언

대표자: 김명희 관장 /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장로 233-27  
연락처: 041)956-2020 / 홈페이지: cafe.daum.net/apoyoune

## 인터뷰

김명희  
여우네 도서관 관장

# “스스로 만든 공간, 재원 자립도 지켜야지요”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교육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율적인 교육 놀이 속에서 싹트는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 스스로가 나섰던 겁니다.”

여우네 도서관 김명희 관장은 도서관을 건립할 때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했다.

김 관장은 “아포마을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아이들과 마을의 미래를 위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소원이 한데 모여 만들어졌다”면서 “여우네 도서관은 사람들이 오가며 쓸 수 있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공동체문화를 만들고자 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여우네 도서관이 문화시설 향토자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때 작은 도서관의 제 기능을 다한다는 설명이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김 관장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운영비 등 재원은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후원회비 등으로 운영되지만 특별히 외부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큰 도움은 잘못하면 우리의 자립성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

사례를 보면 지원 받을 때는 괜찮지만 그 지원이 끊겼을 때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봤지요.”

여우네 도서관은 건립을 할때도 군의 지원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모든 일을 해냈던 곳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또 주민들의 열의를 모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자긍심도 발휘됐다.

이제 여우네 도서관은 책을 기증 받기보다는 구매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을 구비하기 위해서다. 20여 평의 작은 공간도 책을 기증받는 데에 제약을 준다.

“책을 기증받다보면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요. 아이들이 봐야 하는 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장소가 넓다면 전부 보관하면 되지만 협소한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증보다는 구매를 선호하고 있어요.”

김 관장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날짜별로 서천군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사회 문화 복지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 전남 곡성 웃음만땅지역아동센터

## 핵심 키워드

###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 마을공동체형 곡성군 최초의 청소년 전용공간
- 불우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노래 봉사 펼쳐
-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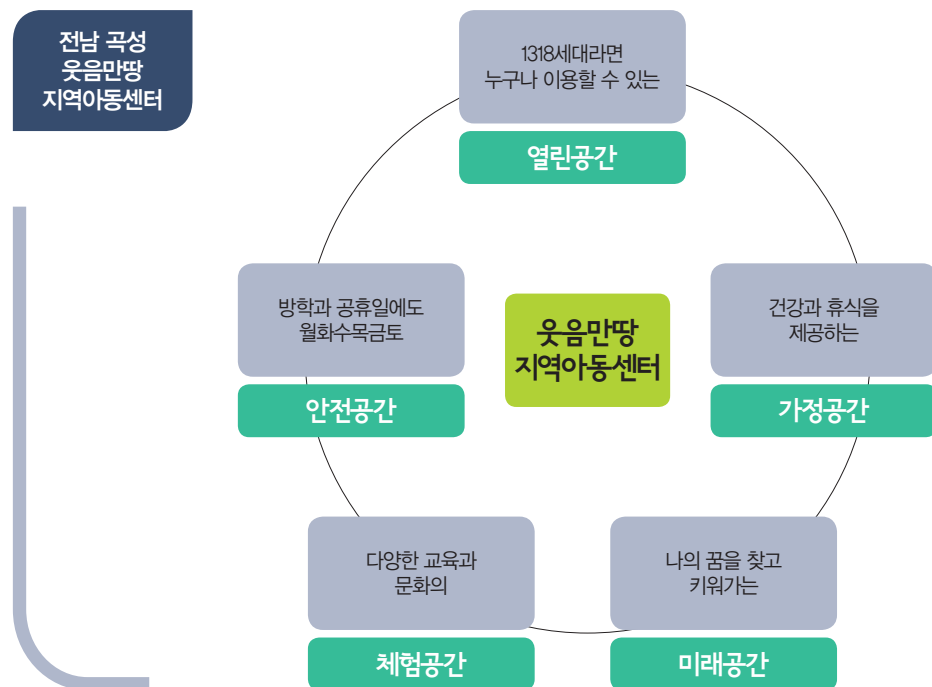
###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

-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 내는 법 배워
- 스스로 기획하고 감사하는 과정 거쳐
- 아이들에게 보배처럼 소중한 휴식처
- 어른들과 연계 아이들 진로 탐색 도와

## 개요

전남 곡성에 청소년 전용공간이 생겼다. 어른들이 만든 공간이 아니다. 광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선후배 4명이 모여 공모사업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분류되지만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바로 '1318 해피존 웃음만땅'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지도교사는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 스스로 꾸민다. 기획부터 섭외 실천 평가까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 곡성군 최초의 청소년 전용공간

지금은 폐교가 된 옛 전남 곡성중앙초교의 단층 건물을 개조한 '1318 해피존 웃음만땅'에서는 매일 방과 후마다 청소년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노래교실을 이끌고 있는 김용운 교사의 허스키한 음색에 남녀 중·고생 12명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이 때만큼은 학생들의 얼굴표정이 밝아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따돌림이 두려워 자기보다 어린 초등학생하고만 어울렸던 여중생 미진이(15·가명)는 외톨이었다. 그런 미진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게 바로 '1318 해피존 웃음만땅'이다.

웃음만땅은 2006년 부스리기 사랑 나눔 공모전에 당당히 선정되어 곡성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전용 공간이다. 3년간 지원을 받다가 사업이 완료되어 이제는 곡성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되었다.

이곳에서 지역 아이들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서로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직접 역할을 나누어서 실천하기도 한다. 이곳이야말로 아이들이 농촌과 지역사회를 제대로 배워가는 아이들만의 놀이공간이자 학교다.

박경희 대표와 김용운 선생 등 사회복지를 공부한 학교동문 4명이 시작한 일이었다. 곡성에 청소년 공간이 없는 것을 알고 지역 요구 조사를 통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



1318 해피존 웃음만땅



웃음만땅  
지역아동센터

## 사업의 성과

###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

1318 해피존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공간이다. 학습과 급식 위주의 기존 공부방과는 달리 해피존은 소외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이 운영 중인 1318해피존 웃음만땅은 곡성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1318세대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로써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서적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담 및 학습, 정보, 문화, 급식, 안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 내는 법 배워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29명 정도다. 방과 후에 요일별로 마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 월요일에는 밴드, 화요일에는 드럼교실, 노래교실, 타악기 동아리, 연극교실 등의 활동을 한다. 노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된 아이들은 연말쯤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1년에 한 번씩 벌써 7회째다. 지역에서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과 도보순례, 방학활동인 ‘꿈 한 발짝’ 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꿈한발짝 순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3학년 학생들에게 학교도 선택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월 2회 이뤄진다. 학생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 정보를 직접 찾아 발표하고, 그중에서 가고 싶은 학교의 환경과 교통, 학교의 장단점, 시험등수 등을 고려한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얘기를 듣는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을 두발로 걸으며 길 위에서 배우는 도보순례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11개 면을 찾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2차는 2011년 1월에 곡성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순례했다. 지난 8월에는 3차 곡성에서 담양을 거쳐 영광까지 순례하기도 했다. 1318청소년들은 도보순례를 하는 동안도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느꼈다는 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스스로 기획하고 감사하는 과정 거쳐

웃음만땅에서는 지도 교사는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분담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평가와 감사도 잊지 않는다.

연말에 이뤄지는 공연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과 도보순례도 똑같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고 약속한다. 연말에 펼쳐진 ‘막나가는 콘서트’도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했다. 곡 선정에서 연습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떻게 부를 것인지도 아이들이 연출했다.

해마다 열리는 도보순례도 어디로 갈 것 인지부터 아이들이 정하고 준비한다. 아이들이 하루 얼마나 움직이고 어디서 휴식을 취할지, 잠은 어디에서 잘지 등도 정한다. 그리고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하고 위임한다. 잠자리 섭외를 위해 직접 실사를 하기도 하고 잠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도 물어본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서로 평가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고마웠는지 등을 따져본다.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편지를 쓴다.

### 아이들에게 보배처럼 소중한 휴식처

웃음만땅은 곡성지역에 유일한 청소년 공간이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되어 있지만 누구라도 가서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는 비결이 됐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친형제 자매처럼 어울려서 활동을 한다. 졸업생들도 가끔 찾아와서 아이들을 제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곡성은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보다 취업에 나서는 아이들이 더 많다.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동아리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이가 적다. 또 졸업생이 취직이라도 하고 나면 이곳을 찾아와 아이들과 어울려 준다.

그래서 웃음만땅은 곡성 아이들에게는 보배처럼 소중한 휴식처이자 공간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배운다. 그냥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직업에 대한 꿈이 아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공간인 것이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겪는 성장통처럼 아이들은 이곳에서 성장통을 바람직하게 겪어내고 있다.



청소년 전용공간

## 어른들과 연계 아이들 진로 탐색 도와

이곳에서 MC용으로 불리는 김용운 선생은 아이들이 꿈을 얘기할 때 직업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고 한다. 아이들이 꿈은 없고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를 생각한단다.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꿈을 심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진로 탐색과 연결해서 어른들에게 들어보는 활동을 준비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일정을 정하고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알아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

대표자: 박경희 / 주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61번지  
연락처: 061)362-1391 / 홈페이지: [www.1318happyzone.org](http://www.1318happyzone.org)

## 인터뷰

박경희  
웃음만땅 센터장

# “아이들이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촌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최소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과 마을의 좋은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죠.”

‘1318 해피존 웃음만땅’의 박경희 센터장은 지나친 학습과 대학 입학준비로 청소년 시기의 지적성장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농촌의 절기를 쫓아 살아가는 어른들의 지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의 공동체문화, 자연에서 얻어지는 지혜 등 보이지 않는 유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아쉽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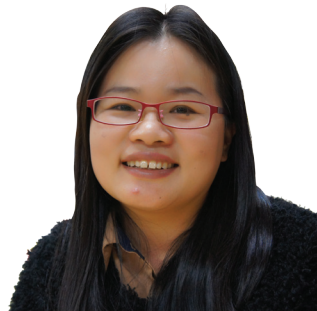
박 센터장은 “그냥 서비스로 국가에서 전달하는 복지가 아니라 이웃 간의 정이 살아 있는 복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는 “좋은 어른이 이웃아이를 만나면 인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인데 그저 그런 소박한 복지를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다.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를 항상 고민한다고 털어놓는다.

농촌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해보고 싶고 북카페도 만들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삶에 대한 인문학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다. 인문학적 소양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어른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의료 이야기

충북 옥천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경기 안성 | 안성의료생협







# 충북 옥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 핵심 키워드

###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 자랑

- 안남면 발전과 주민복지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주민 스스로 떠낸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건립
- 수물지구 지원금 한데 모아 무료순환 버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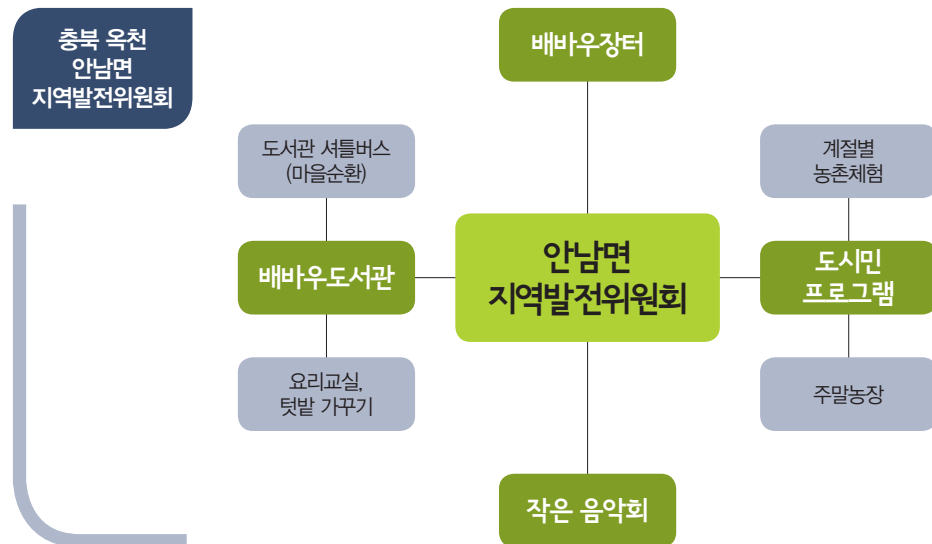
###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 12개 마을 잇는 사랑방 역할 톡톡히 수행
- 무료순환 버스 운영으로 이동편의 확보
- 셔틀버스로 전환, 제도적 문제점 해결

## 개요

안남면은 충북 옥천군의 동북방향 21km지점 대청호 상류의 호반에 위치한 고장으로 금강 주변의 선돌 등 선사유적과 충절의 상징인 증봉조현 선생의 묘소가 있다. 또한 금강변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독락정, 덕양서당, 경율당 등 문화재와 문화유적이 이 고장 역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가벼운 등산코스로서 둔주봉을 오르면 발아래 대청호의 사행천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의 산하가 자연의 신비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곳이다.

안남면은 인구 1500여명으로 옥천군에서도 가장 작은 면이지만 ‘작은 면, 큰 안남’을 기치로 지역 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선도적인 고장이다. 이 고장이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의 활발한 역할이었다. 위원회는 안남면 12개 마을이 하나로 뭉쳐 지역의 중심 사업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주민 자치의 요람이다.



### 안남면 발전과 주민복지 위한 공동사업 추진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006년 마을이장, 기관단체장 36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역발전위원회는 면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 소외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주민들에게 농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되새겨 주는데 큰 공을 세웠다.

위원회는 배바우도서관과 무료 순환버스 운행 외에도 친환경생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배바우장터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는 작은 음악회를 매년 열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이 안남면을 찾아 직접 채소를 길러보는 주말농장과 계절별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주민들 스스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함께하는 우리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주민들과 같이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아이디어 생산과 결의로 지속가능한 안남면이 탄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과 차근차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함께 해 활력이 넘치는 안남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12월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로자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배바우도서관과 셔틀버스



배바우도서관

### 주민 스스로 따낸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건립

안남면에는 2007년 문을 연 '배바우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문화 공간 역할뿐 아니라 도서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도서관을 세우고 도서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민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을의 중재 사업을 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이다.

배바우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공모, 주민 스스로 따낸 사업비 2억 원으로 지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낮은 책장에 마음껏 볼 수 있는 수천 권의 책이 가득하다. 나무로 만든 편안한 바닥과 계단,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1·2층의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배바우도서관은 도서관 옆 자투리땅에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 작물로 요리를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수몰지구 지원금 한데 모아 무료순환 버스 운영

배바우도서관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또 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셔틀버스이다. 이 버스는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 낸 안남면의 마을버스이다.

안남면은 12개 마을이 있지만 교통오지에 속했다. 읍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지 않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도 있고 시간도 두어 시간에 한 대씩밖에 운행되지 않는다. 고령화 된 농촌사회에서 이렇게 버스의 불편은 노인들의 삶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면사무소에 민원서류 한 장을 떼려 해도 10리길을 걸어야 하고 몸이 불편해 병원을

한 번 찾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손으로 해결해 낸 방법이 도서관 셔틀버스운영이다.

### 12개 마을 잇는 사랑방 역할 톡톡히 수행

안남면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12개 마을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옆 마을 친구 집에 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 도시에 가야 버스로 한두 정거장을 가면 되지만 시골길을 아이들이 걷기란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게 해준 곳이 바로 배바우도서관이다. 안남면 사람들에게 배바우도서관은 이제 자랑거리가 됐다. 안남면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서관 덕분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일 곳이 생겼어요. 도시 아이들처럼 학원에 가는 대신 이곳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오죠. 책도 읽고 지도 선생님을 따라 텃밭 가꾸기나 요리교실 등 함께 방과 후 활동을 해요”라고 자랑했다. 이제 배바우도서관은 지역의 자랑거리를 넘어 지역주민이 하나 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도 도서관 이용을 통해 개인적 소통과 마을의 일을 의논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특히 12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이점으로 다른 마을과의 교류는 물론 애로사항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 사업의 성과



무료순환버스

## 무료순환 버스 운영으로 이동편의 확보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스스로의 논의를 통해 이룩한 무료순환 버스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소요경비 등 예산 전체가 안남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에서 걷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다. 이 지역 사람들이 대청댐의 수질 관리 때문에 많은 생활의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도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제도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이런 지원금이 나오면 냉장고나 세탁기를 바꾸는데 주로 사용하지만 안남면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 이 자금을 모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쓰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놓고 고민했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된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자는 것이었다.

안남면 사람들이 지원금을 한데 모으면 대략 1억5000만 원 정도가 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자금을 토대로 버스를 한 대 매입하고 운영을 할 기사 한 명을 채용했다. 그동안 마을로 다니던 버스는 읍내로 나가는 것뿐이어서 차가 없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에 어려움이 컸다.

## 도서관 셔틀버스로 전환, 제도적 문제점 해결

무료 순환 버스가 운행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마을에서 운행하는 무료 순환 버스가 현행 제도에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선 버스 노선을 정하려면 기존에 마을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업체와의 관계를 따져야 하고 군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모두 어려운 일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군청과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12개 마을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득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찾은 묘안이 도서관 셔틀버스였다. 안남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결국 이용하는 주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보는 절묘한 타협점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마을버스 사업을 배바우도서관 셔틀버스로 변경하고 이름은 '도서관 셔틀버스'로 명명하고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버스는 배바우도서관에서 출발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12개 마을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쉽고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활용하기 위한 배려였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

### 아이들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장 마련 돼

도서관 셔틀버스가 운영되면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이 쉬워졌다. 옥천군에서도 가장 작은 안남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대부분 갈 곳이 없었다. 도시처럼 다른 여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집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이런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셔틀버스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 이제 12마을 어디에서도 셔틀버스를 타고 도서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텃밭 가꾸기와 요리교실 등 활동을 통해 정서적이고 실용적인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머니학교

### 어머니 교육편의성 확보에 도움

셔틀버스 운영은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다. 아이들보다 이용률이 더 높은 버스의 주인공들은 바로 ‘어머니학교’ 학생들이었다. 안남 어머니학교는 배움이 모자라는 지역의 어머니들을 위해 설치한 학교로 안남면 사무소 2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 어머니들은 그동안 오로지 농사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어머니들로 예전의 전통적인 농촌 분위기에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다.

어머니학교 교과 과정은 주로 한글을 읽고 쓰는 교육이지만 어머니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읽고 쓰기만 가르치는 다른 교육 기관과는 달리 이곳은 학생 스스로의 ‘자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머니학교 어머니들은 학생회를 조직해 학교 살림을 운영하고, 봄·가을에는 소풍도 가고 학예회도 연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관공서는 무서워서 감히 와보지도 못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면사무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가요. 아침 10시 수업인데 8시, 9시부터 와서 공



부들을 하세요. 행복하시대요. 못 배운 설움, 남녀차별..., 평생의 한을 씻으시는 거죠.”

옥천군 안남면은 배바우도서관과 도서관 셔틀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일들을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마을의 기능 복원과 번영 위한 계획 세워

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 배바우장터로 활용되는 안남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안남면 12개 마을에서 가져온 돌로 12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직접 만든 돌탑이 있다. 12개 마을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잘 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소원이 들어가 있다. 이 돌탑의 염원처럼 안남면 12개 부락 사람들이 지역발전위원회를 토대로 마을의 기능을 회복하고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향후 계획  
및 조언

대표자: 주교정 / 주소: 충북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211-2번지  
연락처: 043)732-5600 / 홈페이지: www.smalllibrary.org

## 인터뷰

주교종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국회 못지않은 위원회 역할 자랑스러워요”

“우리 배바우도서관은 이제 학생들의 문화 공간일 뿐 아니라 온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냥 책만 보는 기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복합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배바우도서관 관장이자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주교종 위원장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 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그만 지역이에요. 하지만 지역 특성상 12개 마을에 산재되어 있어요. 특히 대부분 산골 마을이지요. 때문에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부락마다 상황도 다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12개 마을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12개 마을 대표로 이장들이 참여하고 또 다른 대표들이 12명 더 참석해요. 거기에 지역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30여명 안팎의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마을의 중대한 사업을 건의하고 논의해서 방향성을 정하지요.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 국회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역민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키고 각 사업의 주체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안남면사무소 앞에 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돌탑이 있어요. 처음엔 좀 의도적인 이벤트로 진행했지요. 12개 마을을 12지신으로 상징하고 12개 마을의 돌을 가져와서 직접 그 마을 사람들이 대표로 참석해 돌탑을 쌓자는 취지였지요. 돌탑을 쌓고 12개 마을이 모여 행사를 하는 날인데 돌탑이 무너졌어요. 초보자들이 쌓은 결과였지요. 지금 돌탑은 그래서 다시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이런 일들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다. 비록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해 돌탑을 다시 쌓았지만 12개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대고 노력하는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가 내년에는 또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갈지 벌써 궁금하다.





# 경기 안성 안성의료생협

## 핵심 키워드

### 조합원 건강 지키는 지역공동체 건설

- 독거노인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협동조합 설립
- 존중 받으면서 치료 받을 환자권리 보장
- 1인당 진료시간 3배 이상 꼼꼼히 진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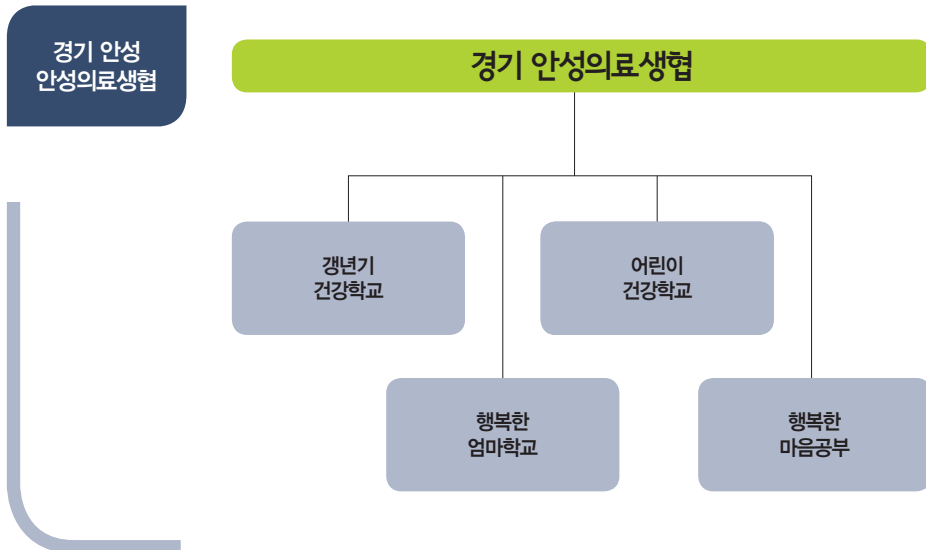
### 환자 중심으로 진료시스템 구축

- 20년째 항생제 오남용 없는 적정진료 '모범'
- 지역 내 5000가구 출자 조합원으로 참여
-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생협 운영시스템 마련
- 병원이지만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도

## 개요

1987년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에 마을 청년들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주말 진료소를 차렸다. 이들은 건강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들은 1994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성의료생협'을 창립했다.

'안성의료생협'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협동조합 설립

병원에 가 본 사람은 안다. 환자는 그저 치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또 자신의 병과 건강에 관해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느끼게 된다. 이런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연히 됐던 이런 것들이 안 통한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것이 ‘안성의료생협’이다. 이들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가족과 이웃의 의료와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이 협동해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운동이다.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건강의 기본 단위가 지역 사회라는 인식 아래 지역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며, 모든 사람들의 협동과 건강을 복돋우고 공개된 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간다. 또 치료뿐 아니라 보건과 예방을 중시해 조합원과 지역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강좌, 체조교실, 등산모임도 진행한다.

### 존중 받으면서 치료 받을 환자권리 보장

경기 안성시 인지동에 들어서자 녹색 바탕의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간판이 들어왔다. ‘협동조합 병원’의 선구자인 ‘안성의료생협’의 ‘본원’이다. 이 병원에 들어서면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자는 이윤 추구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환자권리장전을 읽을 수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대 의대 기독학생회의 의과대 학생들이 주말 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된 진료를 받을 병 · 의원이 없었다. 이후 제대로 된 진료기관을 만들자고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의료인 두 명이 뭉쳤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생활협동조합 형태를 모색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 1인당 진료시간 3배 이상 꼼꼼히 진찰

이곳은 환자당 진료시간이 일반 병원보다 길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꼼꼼하게 진찰하고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원인과 처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5분 진료를 받는 다른 병원과는 차이가 크다. ‘안성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낭비를 줄여 지역사회 전체의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환자 수는 일반 병원의 30% 가량이지만 1인당 진료시간은 3배 이상으로 의사는 환자를 꼼꼼히 진찰해준다. 일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 수는 평균 110명인 것과 비교하면 ‘안성의료생협’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37명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는 이곳에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일반 병원의 3배란 뜻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수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수치의 중요성은 진료시스템이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렇다보니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형성이 의료생활협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됐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보다 의료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건강모임



### 20년째 항생제 오남용 없는 적정진료 '모범'

특히 이곳은 감기에 걸려도 쉽게 항생제 주사나 약을 주지 않는 적정진료를 20년째 지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의 일종)'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전국 의원급 평균이 53.2%인 반면 의료생협은 5.9%에 그쳤다. 이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한 여성은 "항생제 처방에 대해 안심 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 "다른 병원을 다닐 때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나 내가 얼마나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항생제 남용이 심장병이나 당뇨병, 심지어 자폐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내성을 키우게 되면 슈퍼 박테리아 등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안성의료생협'이 20년째 항생제 오남용이 없는 적정진료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한 성과다.

### 지역 내 5000가구 출자 조합원으로 참여

국내 최초이자 최대 의료생협인 '안성의료생협' 조합원은 현재 5000가구다. 의료서비스는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구로 정했다. 이 조합원 규모는 안성시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진료소도 일반 의원 3개, 한의원 2개, 치과 1개 등 6개에 이르고 의사가 15명이며, 재가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100여명에 이른다. '안성의료생협'은 내원 고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 혼자 사는 노인, 노인부부 가구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료하는 것이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이다.



조합원 모임

###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생협 운영시스템 마련

안성 내 120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중심으로 동 단위의 ‘건강모임’을 열어 의료생협을 알린다. 이들은 한 해 100회 이상의 소규모 조합원 모임을 연다. 조합원에게 조합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과 환자, 직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생협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병원이지만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도

환자진료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활동도 중시한다.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알려준다. 댄스, 명상,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안성의료생협은 병원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해바라기’, ‘건강 학교’, ‘아침 교육’ 등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현미채식법을 익히는 6~8주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높다. 올해 시작한 운동프로그램도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주민들에게 이곳은 아플 때만 찾는 병원이 아니라, 마을의 놀이 공간이자 생활공간인 썸이다.

## 향후 계획 및 조언

### 재정 자립 확보와 지역네트워크 구축 앞장

‘안성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사랑방 같은 병원과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 확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생협은 ‘지역병원’으로서 늘 재정문제와 맞닥뜨린다. 지난 2006년 건

강증진센터 등 시설을 늘리면서 이듬해 적자가 났다. 2010년 말에는 '안성의료생협'에 포함된 치과나 한의원은 수익률이 점점 떨어졌고 가정의학과는 거의 적자 상태였다. 결국 전 직원의 월급을 5%씩 삭감했고 4명의 직원이 떠났다. 이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12명이 자발적으로 월 10만원 수준인 자신들의 활동비를 내놨다. 다행히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생협은 직원들에게 5% 삭감 액을 웃도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지만 직원들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떼어 의사들이 내놓은 활동비를 채워주려 했다. 의사들은 그 돈을 다시 모아 조합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조합원과 직원들이 합심해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년째를 맞은 '안성의료생협'은 이제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비슷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이들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성의료생협'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지역네트워크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5000세대를 넘어선 조합원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기초적인 마을단위의 조합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협은 위원회 안정화, 소모임 활성화, 마을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점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조합원 활동을 대의원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 조합원 활동가 양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의료생협에서  
진행한 현미채식 강좌

대표자: 이기범 이사장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번지  
연락처: 031)672-6121 / 홈페이지: www.asmedcoop.or.kr

## 인터뷰

김대영  
안성의료생협 실장

#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

“생협을 20년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입니다.”

‘안성의료생협’의 김대영 실장은 환자들이 의사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에 의심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환자 자신이 조합원이자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혼자 개원한 의사들의 경우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문 닫는 곳도 적지 않다. 너무 영리만 추구하다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료만 정성껏 하면 되니까 좋다.”

급여를 덜 받더라도 환자의 존중을 받으면서 진료에 전념하겠다는 의료인에게 의료생협은 괜찮은 직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가 상품화되고 사람의 건강이 대상물이 돼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진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의료생협이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고민거리도 있다.

“지난 2년간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원금이 종료되면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악화 이유는 2011년 서안성지점 설립이후 지점의 경영 상태가 예상보다 더디게 호전되는 것이 큰 요인이다.”

김 실장은 이런 문제들을 신규 진료 아이템 개발 등 신사업 개발과 후원금 조성,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공공사업 수행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성의료생협’은 3곳의 거점과 의료기관 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사업소 내부와 기관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의료생협에 대한 이해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 집행이 조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사업소 및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 협동조합 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주여성의 행복한 농촌 정착 이야기

전북 익산 | 농촌이주여성센터

전북 완주 | 북카페 보물섬







# 전북 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 핵심 키워드

###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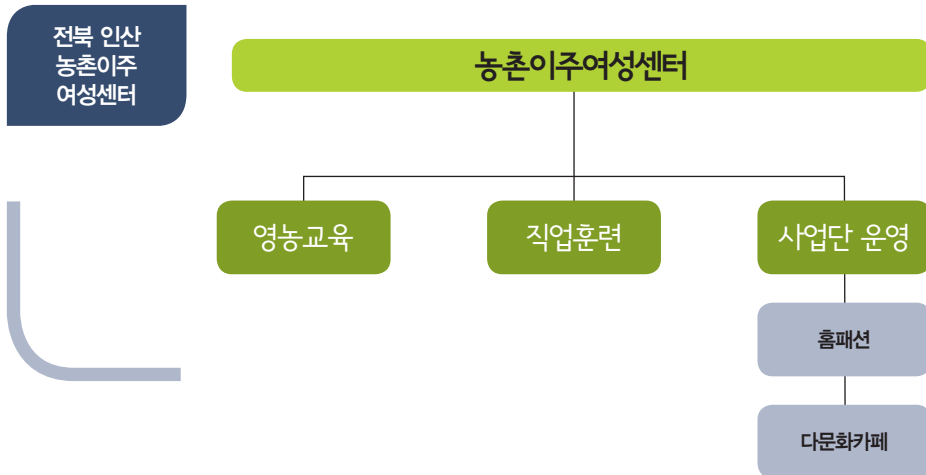
- 국경 초월한 농촌여성 생활공동체 건설
- 이주여성 자립기반 조성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이주여성 영농교육으로 첫 교육생 모집
- 60여명 공동출자로 음식점·홈패션 사업 시작

### 이주여성, 농촌의 당연한 구성원이란 인식 제고

-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없애는 데 한몫
- 이주여성, 당연한 경제 주체로 자리 매김
- 지역사회서 이주여성 바라보는 시각 개선

## 개요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한 익산시는 서해와 옥구, 김제 평야를 어머니 품안으로 껴안고 있는 형상이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류가 유통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맥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익산시는 전라선과 호남선, 군산선(장항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 인구가 유난히 많고 익산 공단 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귀금속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익산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농촌지역이다. 이런 특성으로 이 지역은 전통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힘이 교차하기도 한다. 아직 생활 속에서의 규범이나 인식은 농촌과 닮아있지만 생활 기반이나 경제 부분은 도회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곳에도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농촌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이 농촌에 그 뿌리를 두고 생활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여성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 익산의 농촌이민여성센터다. 이곳은 결혼 이주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익산으로 시집을 왔거나 익산에 생활 기반을 두는 여성들이 한데 뭉쳐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내고 또 다른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농촌이민여성센터는 결혼이주 여성과 다른 지역에서 모여 든 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간다. 처음에는 단지 모임의 성격을 갖추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의 친정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이 틀을 마련하고 두리두레영농조합을 결성하고 다문화 카페와 홈패션 매장을 운영하는 등 경제사업도 펼치고 있다.

### 국경 초월한 선주민-이주민 공동체 건설

농촌이민여성센터는 농촌 여성들이 함께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한다. 농촌이 좋아서 왔건, 조건에 떠밀려 왔건 농촌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잘 살아보자고 모인 것이다. 농촌이민여성센터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취지로 한국인들과 똑같이 대한다. 바로 옆집 오빠랑 연애 결혼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남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이라는 해석이다. 선주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가깝게는 군, 시, 도의 경계를 넘어서 농촌으로 살러 온 것이고, 멀리 국경을 넘어 시집을 온 이주여성은 국경과 거리의 차이일 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 뿌리내려야 하는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다. 때문에 서울댁, 밀양댁처럼 고향이나 자란 곳을 지명을 섞어 부르는 특징을 그대로 베트남댁, 필리핀댁, 몽골댁 등으로 부른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인 것이다.

### 이주여성 영농교육으로 첫 교육생 모집

처음에는 농촌여성들이 모여서 할 일을 찾는 데에서 출발했다. 주변의 여성들과 시간 되는데대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 함께 일할 친구



농촌이민여성센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패션 매장

들은 거의 결혼이주 여성들이었다. 농촌여성들의 문화생활, 자녀교육, 소득증대 등 아무래도 제 자신의 주된 고민이 함께 할 내용이 되었고, 비슷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그렇게 함께한 여성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2008년 8월에 '사단법인 농촌이민여성센터'를 만들고 공식적인 일들을 시작 했다. 첫 사업은 '이주여성 영농교육'으로 교육생을 모을 때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며 결혼이민여성 가족들을 만나 사업설명을 하고 참가신청서를 받아 교육을 시작했다. 그땐 몰랐는데 가족을 본인들 집에서 만났다는 게 엄청난 친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냥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시 음식이랑, 전통 놀이를 선주민과 결혼이민여성이 함께 배우고, 이민여성 모국 음식도 서로 배워가며 지역 축제도 참석하면서 지역에 조금씩 알려지게 됐다. 마침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우고 즐기다 보니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직업교육과 소득사업을 연계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60여명 공동출자로 음식점·홈패션 사업 시작

여럿이 힘을 모아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우리들 힘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영농조합을 만들고 출자금을 모아 다문화음식점과 홈패션 매장을 마련했다. 이때 60여명이 출자하여 익산시 소유의 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출자자 명단을 새겼다. 문패를 달아 우리가 주인이니 서로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였다. 2012년 5월에 막상 문을 열고 보니 힘든 일이 많았다. 의욕은 하늘을 찌르는데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건 그만 못하고, 세상일이라는 게 금상첨화가 매번 있는 건 아니었다.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단을 꾸리고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했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없애는 데 한몫

농촌이민여성센터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농촌사회의 두터운 편견을 떨쳐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도 그저 대구나 광주, 서울에서 시집 온 사람처럼 베트남댁, 필리핀댁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사는 방법을 모색한다. 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 처음 영농교육생을 모집하면서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했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참가 의사를 독려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사업들이 그저 전시성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 접목될 수 있는 실생활형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모임의 장소였던 사무실이 시장 안에 있던 것도 한몫했다. 농촌의 바쁜 생활 속에서 다른 장소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시장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 주부들이 언제나 다녀가는 길목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농촌이민여성센터는 이런 점에 착안해 사무실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과 여성들이 불만한 도서들을 구비했다. 이로써 이주여성들에게 가끔 들를 수 있는 친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이주여성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영농교육이 목적이었지만 사무실에 자주 들러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이나 고부갈등, 가정 내 고민 등으로 확대 되었다. 농촌이민여성센터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족들도 적극 후원해주는 모임이 되었다.



홈패션을 하는 이주여성

### 이주여성,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 매김

센터가 이주여성들과 공동 출자해 마련한 다문화음식점과 홈패션 매장은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도움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다문화 음식점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운영하지만 쌀국수 등의 메뉴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고향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이런 메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행사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자기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고국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을 마련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농촌 사회에서 갖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깨어져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 지역사회서 이주여성 바라보는 시각 개선

이주여성들이 공동 출자한 다문화 식당은 물론 홈패션 매장도 지역사회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이주여성들을 폄하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단지 고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농촌 사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 황등면 풍물시장에 여러 나라 음식 팔 계획

농촌이민여성센터는 앞으로 영농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영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동체를 향해 나가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손수 재배한 농산물과 결혼이민여성 모국의 야채로 황등면 풍물시장을 먹을거리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는 가장 큰 성과로 지역에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씨앗을 심은 것을 꼽으면서 향후 다른 곳에서 공동체를 조직한다면 이런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랐다. 이 공동체의 성공 포인트는 모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의지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꼽는다. 다르게 말하면 특출하게 잘난 사람이 없어 서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식당에서 또는 홈패션 매장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의지하는 이주여성들이 바라는 소원은 익산 시장 한곳에 서로의 고향음식을 먹고 만나며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 인터뷰

김인선  
농촌이민여성센터 대표

# “위에서 시키지 말고 조금만 먼저 하면 별 탈 없어요”

“익산으로 귀농해서 땅만 보고 살았는데 살다보니 마음 아픈 일이 생기  
데요. 처음 농사를 배우러 어르신들 쫓아다니며 품을 팔았습니다. 농사일  
하는 게 몸이 고달프고 힘이 드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이겠지만  
농사 일 하는 걸 하찮게 여기는 걸 보면서 많이 속상했지요.”

김인선 농촌이민여성센터 대표는 지난 98년 겨울 농사를 지으려고 익산  
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뭐 하러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러 왔냐며 묻는 사  
람들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꾸리려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즐기라고 조언  
한다.

“누가 시켜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한다는 것  
도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마음공부. 사는 공부. 6년간 대표로 있으며 저에  
게 힘이 된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저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며 성장해나갈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가 농촌이민여성센터를 운영하면서 결심한 것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는 것이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고, 또 뭔가를 지키려고 시  
작 한일이 아니라면 언제나 사람을 보고, 알고, 배우려 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기다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면 자신만 힘들어져요. 위에서 시



키는 게 아니라 조금 아주 조금만 먼저 하면 세상 사는데 별 탈 없어요.”  
그녀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묻자 “딱히 없어요. 그냥 즐겁게,  
겸손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단체에서 회원들이 하는 말이 있  
어요. 우리 다음에 이거 하자, 이런 곳으로 이사하자 등등. 뭐 그냥 해보  
는 소리려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졌어요.”

김 대표는 또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전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교육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  
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매장을 열 때 따로 개업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스스로 감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는 주체가  
변화하고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소문난 잔치가 안 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  
심을 가져 주면 당장은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님은 가고 쓸쓸히 주인만  
남았을 때를 대비하고 싶었지요.”





# 전북 완주 북카페 보물섬

## 핵심 키워드

### 지역민-이주여성 소통의 공간 '보물섬'

- 결혼이주여성들의 편안한 친정 역할
- 정부 공모사업 선정돼 2011년 3월 개관
-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 편견의 벽 허무는 따뜻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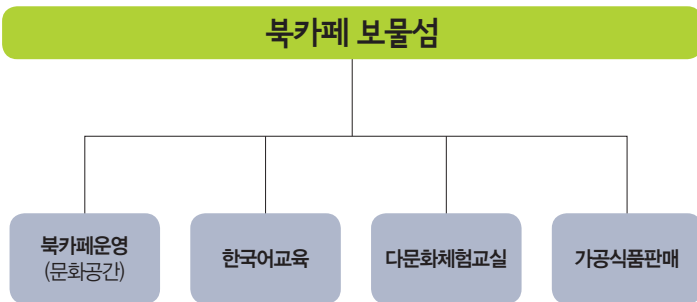
- 이주여성도 지역사회 일원이란 자부심 일깨워
- 주민들과 함께 쉬는 문화 공동체 터전 마련
- 다문화 체험교실 등 적극 나설 계획

## 개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은 언어문제이다. 멀리 타향으로 시집을 왔으나 한국말은 배운 적이 없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어렵다. 가장 간단한 것들만 몸짓을 이용해 소통한다.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씩 배우기는 하지만 여간 어렵지 않다. 문제는 말이 안 통하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문화적 차이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 속할 정도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말을 배우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큼 다가왔다. 아직 어설픈 구석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완주군의 북카페 보물섬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친정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새로운 이웃을 사귀는 공간으로 다가왔다.

전북 완주  
북카페  
보물섬

### 북카페 보물섬



### 결혼이주여성들의 편안한 친정 역할

전북 완주군 봉동읍사무소 1층의 '북카페 보물섬'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또 다른 친정이다. 보물섬에 들어서면 언제나 향긋한 커피향이 반긴다. 지역 주민들은 사람을 만나서 담소를 즐기는 장소로, 결혼이주 여성들은 고향이 그리우거나 친구가 필요할 때 들르는 친정 같은 곳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로 시집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는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한다. 자녀 육아, 경제적 문제, 국적취득 과정 등에 대한 조언도 절실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했다. 결혼이주여성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라 시집 사람들과 갈등을 겪거나 정착과정에서 외로움 등으로 힘들어 할 때는 이들의 상처를 함께 싸매고 나누는 곳이 절실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인 보물섬이다.

### 정부 공모사업 선정돼 2011년 3월 개관

이곳은 2010년 10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자금을 지원받아 2011년 3월 문을 열었다. 완주군이 주선해 읍사무소 공간 일부를 제공했고, 완주도서관과 주민들이 책 1000여권을 기증했다. 지금은 책이 1만 여권으로 늘었다.

북카페 보물섬이 생긴 데는 이병운·김종례 부부의 힘이 컸다. 김종례 씨는 2007년 2월부터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 한국어를 가르쳤다.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강사를 뽑는데 지원한 것이 계기였다. 김씨는 완주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3명씩을 방문해 5개월 정도씩 가르쳤다. 그러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시집과 갈등을 겪는 결혼이



북카페 보물섬



북카페 박물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주여성들의 고민들을 상담 해주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런 지원을 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됐다.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민도 나누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0년 6월 제6회 완주 맛 고을 음식품평회에서 군민화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모국음식 체험행사가 있었다. 김씨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을 팀으로 구성 월남쌈으로 참석해 장려상을 받았다. 주위에서는 식당을 차려보라고 권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주저했다. 식당보다는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정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장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완주군이 추천한 읍사무소에 들어오는 것도 순탄치 않았다. 지역주민들이 막연하게 결혼이주여성들을 꺼리는 풍조 때문이었다.

그럴수록 주변을 설득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다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해외에 나갔던 일들도 상기시켰다. 이렇게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군 공무원의 도움으로 지금의 보금 자리를 꾸미게 됐다.

###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박물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로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다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속도도 빠르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주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간혹 고향의 음식을 만들거나 고국에 다녀오는 이주여성들은 자랑하기라도 하듯 이곳으로 음식 재료를 가져온다. 이들은 같이 음식을 해먹으면서 서

로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도 처음엔 여기서 만든 외국 음식을 꺼렸지만 지금은 월남쌈, 쌀국수 등을 꽤 좋아한다.

이주여성들은 2013년에는 배추 100포기로 함께 김장을 했다. 배추를 다 들고 절이는 방법과 양념하는 방법 등을 익히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계절이 오면 할 일들을 찾는다. 생강이 나오는 계절이 되면 여럿이 모여 생강차를 만들기도 한다. 보물섬에서 차로 팔기도 하고 병째 판매하기도 한다.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만 한국의 절기와 계절에 따라 이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이주여성도 지역사회 일원이란 자부심 일깨워

이제 보물섬은 이주여성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보물을 캐는 장소가 됐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그들도 농촌지역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 큰 성과다.

보물섬에서 일하는 3명의 여성은 모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다. 한국에 온지 7년이 된 팀장 5년, 8년차인 두 여성이 함께 일한다. 운영책임을 맡은 단티투(26)는 단무지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 1년여 전 이곳으로 왔다. 그녀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 한국말도 빨리 익히게 됐고 베트남 친구들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좋다고 얘기한다. 그녀는 틈틈이 공부해서 지난 7월에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다른 여성도 바리스타 공부를 따라 시작했다. 이들을 만나러 온 결혼이주여성들도 북카페가 바쁠 때면 서로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이 카페 이름을 보물섬이라고 지은 것은 미래의 희망을 찾자는 동기

## 사업의 성과



주민들과 함께 쉬는 공간  
'보물섬'

에서였다. 기증받은 책이 비록 헌책이지만 잘 수선해서 정돈하면 새 책 못지않은 보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노력하면 이곳을 소중한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도 담긴 이름이다.

### 주민들과 함께 쉬는 문화공동체 터전 마련

북카페 보물섬이 결혼이주여성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장소는 아니다.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고 마시고 놀며 배우는 공동체 문화터전이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공부도 하고 책을 읽는다. 음료수 값은 시중 카페 가격의 40~50%여서 근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주 찾는다.

북카페를 자주 찾는 한 손님은 “이곳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보여서 느낌이 좋다”면서 “이주여성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의지할 곳도 찾기 쉽지 않을 텐데 여기가 그들의 소통공간이 되니까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보물섬을 공부방으로 자주 이용한다. 학교 주변에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주 온다는 한 학생은 “도서관은 공부하면서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아기를 업고 온 한 여성은 “힘들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아기에게 동화책도 읽어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이야기했다.



### 다문화 체험교실 등 적극 나설 계획

2014년 3월이 되면 보물섬이 문을 연지 만 3년이 된다. 수익을 많이 내야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수익은 크지 않은 편이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이 보내주던 지원금이 2014년에는 끊길지도 모른다. 재정 자립을 앞당기려고 지역 특산품인 토종 생강을 이용해 생강차와 편강을 만들어 팔고 있지만 아직 완전 자립은 쉽지 않다. 더욱이 봉동읍사무소가 이전을 앞두고 있다. 가능하면 함께 이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보물섬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립력을 키우고 있다. 완주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체험 교실 강사를 요청하면 적극 나설 참이다.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향수음식·야생음식·이색음식을 주제로 여는 완주군의 와일드푸드 축제에도 부스를 만들어 참여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 인터뷰

김종례  
북카페 보물섬 대표

# “이주여성들이 자립할 울타리가 돼줘야지요”

“처음에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5개월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했는데 가정사 등에 대해 자꾸 상담을 하게 돼요. 한국에 시집 와서 정착하기까지 온갖 일을 겪으면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말을 가르쳤으니 당연히 다른 일도 해결해 줘야 했지요.”

김종례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을 가르친 친정엄마 같은 존재다. 이들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것이었다.

“보물섬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주여성들이 나이가 무척 어려요. 한국의 또래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회를 배워가는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시집을 왔고 당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대표는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정착에 도움이 될까 고민했다. 그러다 카페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옆에서 잘 할



이주여성들의 추억 게시판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마침내 3년이 다 되어서야 그 목적이 일차적으로 성공했다. 보물섬이 운영되면서 소득도 늘어났고 일자리도 만들게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들과의 편견이 좁아지고 인식 개선이 됐다는 것이 더 큰 성과다.

김 대표는 “북카페가 3년간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일하는 친구들도 당당해지고 밝아졌고요. 이제 지역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요.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주여성들은 여성들 대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요.”

그녀는 “보물섬이 조금만 더 활성화 되어 규모가 커지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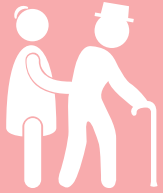
이렇게 북카페 보물섬에선 결혼이주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보석처럼 영글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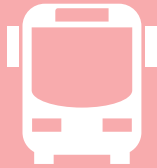


# 지자체 · 기관 사회서비스 사례

노인복지



대체교통



공동거주





#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자체의 복지 이야기

전북 무주 | 작은 목욕탕

충남 서천 | 희망택시

경남 의령 | 독거노인 공동거주 사업







# 전북 무주 작은 목욕탕

## 핵심 키워드

###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개선

- 주민들 스스로 목욕탕 사업 자연스럽게 제안
- 다양한 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

- 가깝고 싸고 물 좋은 '1000원 목욕탕'
- 목욕탕사업, 지역여론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
- 전북 50여곳 설립 성과...전국 확산 될 듯

## 개요

###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의 삶 바꾸었다

전북 무주군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5개도 6개 시·군이 함께 만나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특히, 국토의 남북축을 형성하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무주를 관통함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내륙교통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주군은 면적 631.9 km<sup>2</sup>로 서울시 전체면적보다 약 27km<sup>2</sup> 넓지만 인구는 2만 6000명으로써 쾌적한 전원 농촌지역이다. 또한 우리나라 내륙지방 중에 가장 중심부를 점유한 산악지대이기도 하다.

이런 무주군의 자랑거리는 작은 목욕탕이다.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부남면을 시작으로 4개 면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이제 전라북도의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고 있어 농촌 생활의 편익에 일조하고 있다.

전북 무주  
작은 목욕탕  
기대효과

작은 목욕탕

소통과 공감의 정보교류의 장

건강과 위생문제 해결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 사업의 내용

### 주민들 스스로 목욕탕 사업 자연스럽게 제안

전북 무주군이 작은 목욕탕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이 작은 목욕탕은 안성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발의로 생겨났다.

감응(感應)의 건축가라 불리는 고(故) 정기용씨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면사무소 건물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면사무소는 뭐하러 짓는가? 목욕탕이나 지어주지”라고 대답했다. 목욕 한번 하려고 마을 사람들끼리 봉고차를 빌려 대전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원해서였다. 정기용씨는 주민들의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무주군에 건의를 해서 안성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지었다.

무주군은 전국 최초로 2002년 부남면을 시작으로 안성면, 무풍면, 설천면 등 4곳의 자치센터 안에 공중목욕탕을 조성했다. 군은 목욕탕이 없던 농·산촌 주민들이 언제든 마음 편히 주민센터에 들러 일도 보고, 몸도 씻을 수 있도록 1층에 100㎡ 안팎의 공간을 마련했다. 내부에는 러닝머신을 비롯해 자전거, 안마기, 마사지기 등을 설치해 운동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목욕탕은 남녀가 짝수일과 홀수일로 구분해 이용토록 했다. 요금은 65세 이상은 1000원, 일반은 1500원을 받는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 사업의 성과

### 가깝고 싸고 물 좋은 '1000원 목욕탕'

무주군의 작은 목욕탕은 장날을 맞으면 더욱 분주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목욕탕이 없을 때는 장계면, 또 충남 금산까지 목욕하러 다녔다. 밥 사먹고 차비까지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성면에 작은 목욕탕이 생긴 뒤로는 “가깝고, 싸고, 물이 좋아서 하루걸러 한 번씩 꼭 온다”고 말했다.

값싼 목욕탕이 있는 안성면은 복 받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145개 면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45개 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면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목욕탕 신축 및 리모델링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시군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면지역 1000원 목욕탕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은 목욕탕을 늘리는 일은 곧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고,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사업의 순향을 기대하는 이유다.



목욕탕이 있는  
설천면 사무소

### 목욕탕사업, 지역여론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

무주군 작은 목욕탕사업의 결과는 완전 대히트였다. 목욕탕이 생긴 뒤로 안성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목욕탕 하나 만들었다고 주민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성면 사람들의 생활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졌다. 힘겨운 논일이나 밭일을 끝내곤 삼삼오오 모여 목욕탕을 찾았다.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면 하루 피로가 다 없어지는 듯했다. 그러다보니 목욕탕은 자연스레 동네 사랑방이 됐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역공동체도 살아나고 있었다.

씻을 공간이 없던 주민들이 손쉽게 드나들며 청결한 생활을 하는 한편,

이웃들과 소통 시간을 갖고 있다. 전체 이용객은 지난 한 해에만 연인원 5만3000여명이나 된다.

이종현 무주군 기획계장은 “인구가 4700여명인 안성면의 경우 하루 평균 83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작은 목욕탕이 쉼터도 되고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작은목욕탕

### 전북 50여곳 설립 성과… 전국 확산 될듯

무주의 작은 목욕탕은 이제 전북 50여 곳에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미 고창에는 또 다른 작은 목욕탕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효과는 무주군의 작은 목욕탕 사업이 성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운영비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제시됐다. 일반인 요금에 대한 일부 현실화와 함께 고창군 1호점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한 방법에서 그 해법을 찾은 것이다. 이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물을 데우는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가 운영비 감소에 큰 기여를 했다. 기름보일러로 물을 데우는 대신 공기 열을 전기로 데워 물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주민의 체감형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장날 목욕탕 등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작은 목욕탕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담당자: 무주군청 기획관리실 기획계장 이종현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연락처: 063)320-2114 / 홈페이지: www.muju.go.kr

##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무주군은 1000원 목욕탕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체육공원 등 생활밀착형 군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축구와 게이트볼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각 읍·면 생활체육공원과 예체문화관의 수달수영장, 헬스장, 반딧불체육관 등은 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6월 개관한 김환태문학관과 최북미술관은 공공성을 우선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어 군민 및 문학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안성면 진도리 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6,500여 권의 장서를 비롯해 학습을 돕기 위한 영상기자재와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어 농촌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주군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실버 카 등 보조장구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268개 경로당에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남면 지역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을 신축 하여 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추모의 집 등 장례시설들도 갖추고 있어 ‘초고령 사회’라는 지역 실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저렴한 사용료와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 장려금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수달수영장, 무료 순환버스 운영 등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간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중 독거노인 7명 이상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73개소다. 무주군은 사업비 1억 5백만원을 투입,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 독거노인들의 혹한기 어려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 인터뷰

이종현  
무주군청  
기획관리실 기획계장

# “가는 곳마다 재미있는 무주 만들어요”

“무주를 삶의 재미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미 작은 목욕탕은 기본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경험했거든요. 이제 무주는 너무 재미있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할 일이 넘치고 날마다 갈 곳이 많은 그런 무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무주군청 이종현 기획관리실 기획계장은 앞으로 무주가 다른 곳과 달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목욕탕은 이미 그 실용성이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문제는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전부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부담인 큰 것이지요.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적자 폭을 개선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유류비 등 제반 경비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요금 등을 조금 상향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부담은 줄여야지요.”

이 계장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인데 적자 폭이 너무 큰 것을 우려했다.



“우리 무주는 노인들이 살기에는 천국입니다. 아침에 1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나오셔도 하루 종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요. 각종 스포츠 시설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아요. 문화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지요.”

그는 무주군이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으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어른들이 적은 비용으로 목욕탕은 물론 수영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문화 관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특히 어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제 무주에서는 어르신들이 큰 걱정 없이 큰 웃음소리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됐다.





# 충남 서천 희망택시

## 핵심 키워드

### ‘희망택시’로 오지마을 교통문제 해결

- 교통약자인 농촌노인에게 이동편의 제공
- 희망택시,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전면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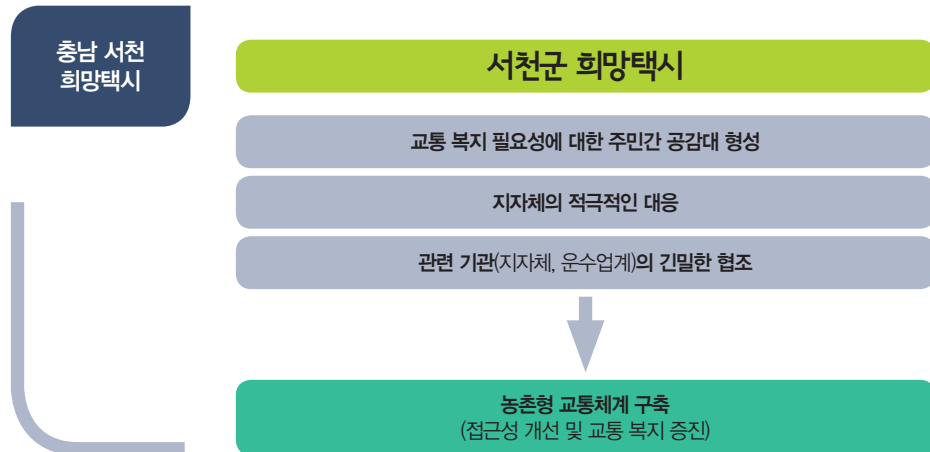
### 개인 부담 줄이고, 군 재정에도 도움

- 오지마을 주민들의 손발 노릇하는 효자
- 저렴한 이용료로 지역주민 경제 부담 절감
- 희망택시로 1년에 1억 원 재정 절감
- 지자체 대중교통 관리부서의 난제 해결

## 개요

충남 서천군은 총면적 357.85 km<sup>2</sup>에 인구 6만1000명으로 비교적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토지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농경지는 1만 4426 ha로 전체면적의 40.5%이며, 이 가운데 밭이 3400 ha, 논이 1만 1026 ha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인 쌀은 금강 하류에 있는 한산면·화양면·마서면 일대의 비옥한 충적평야에서 주로 생산된다. 임야는 1만 5081ha로 전체면적의 42.1%를 차지한다. 이들 임산지에서는 밤 버섯 호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의 각종 임산물이 생산되는데, 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천군의 서부지역은 72.5km에 걸쳐 서해안과 접하여 5000여 ha에 이르는 천혜의 양식지를 이룬다. 이곳에서는 주로 김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에는 아직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이 많다. 이에 서천군은 버스 운송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통해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희망택시’를 도입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서천군은 오지 마을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자 술한 우여곡절을 넘으면서 ‘희망택시’를 선보였다.



### 교통약자인 농촌노인에게 이동편의 제공

오지마을에 택시를 통해 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교통약자인 농촌 노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특히 농촌버스 운행조차 쉽지 않은 오지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유효한 복지시책이다.

희망택시 운행사업은 애초 서천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내놓은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공약이 현실로 이뤄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선 사업에 앞서 조례를 만들 때 근거 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삼은 게 문제였다.

법령상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일명 택시법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충청남도의 지적도 나왔다. 몇몇 시·군에서도 희망택시와 비슷한 정책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바로 이 대목에 발목이 잡혔다.

만들어진 조례는 일단 포기했다. 서천군 희망택시도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서천군에서는 발상을 완전히 바꿨다. 문제가 됐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법(9조2항2호)에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명시돼 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희망택시 사업이 택시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농어촌마을의 교통복지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우리리마을회관

## 희망택시,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전면 운행

외딴 마을인데다 도로도 좁은 탓에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곳의 주민들이 인근마을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거나 비싼 요금을 주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노력이 현실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나 선관위, 법제처로부터 희망택시의 운행방식과 주민지원,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했다.

마침내 2013년 5월31일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고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이미 운행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

서천군청은 조례 제정에 앞서 2012년 말부터 2013년 3월까지 23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이동 패턴표’를 일일이 작성해 최적의 운행 날짜와 시간을 소상히 파악했다. 조사 결과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65살 이상이고, 목적지는 시장·병원이 있는 읍·면 소재지, 운행 필요시기는 병원은 평일, 시장은 장날에 집중된다는 것, 또한 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 패턴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로 여건이 다른 3개면 3개 마을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행을 실시한 결과 이용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 전면 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6월에 16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는 조례에서 정한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전면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 오지마을 주민들의 손발 노릇하는 효자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의 아침은 부산했다. 아침 7시 남짓의 시간에 마을회관 앞에는 벌써 어르신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찢 옥수수를 자루에 가득 담아 장터에 나가는 한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곧추 세우며 택시를 기다린다. 할머니는 오지 산골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평생 밭농사를 지었다. 찢 옥수수는 판교 장에 내다 팔 물건이다. 하루 장사만 잘 하면 할머니 주머니가 제법 두둑해질 것이다.

마을회관 앞으로 희망택시는 7시30분에 도착 예정이다. 벌써 회관 앞에는 호미처럼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택시를 기다리며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한 번에 네 명밖에 타지 못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장에 나갈 때까지 택시는 계속 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장에는 15명이 시장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예전 같으면 차마 누릴 수 없는 호사가 아닐 수 없다. 문곡리에서 판교면까지는 4km 남짓, 출잡아 10여리 길이다. 희망택시 없이 걸어 나가려면 노인네 걸음으로 1시간도 넘게 걸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서천군이 시작한 희망택시 운행사업이 오지마을 주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어촌버스조차 다니지 못하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손발 노릇을 하는 희망택시는 그야말로 효자다.

50여 가구 80명이 사는 문곡리는 서천에서도 대표적인 오지다. 서천읍은 커녕 판교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도 고개를 돌이나 넘어야 한다. 예전에는 한겨울 빙판길에도, 한여름 피약벌에도 산길을 걸어야 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 버스가 들어오지 못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

희망택시 운행시간표

6월 희망택시 운행시간표(우라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운행시간 : 우라리 희망택시 운행시간표 참조  
 운행 시간 : 우라리 희망택시 운행시간표 참조

마을회관 앞에  
게시된 운행시간표

### 저렴한 이용료로 지역주민 경제 부담 절감

이렇게 시행된 희망택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편의시설이 되었다. 평생 농사를 짓다가 생긴 허리 무릎 통증에 병원을 오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희망택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 한 번 가기도 까다롭고 번거로웠을 테지만 이제는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희망택시를 이렇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비결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꼬깃꼬깃 접은 만 원짜리를 꺼낼 필요가 없다. 서천읍에 갈 때는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만 내면 된다. 판교면에 갈 때는 몇 명이 타든 택시 1대당 100원만 내면 되는 '100원짜리 택시'다.

문곡리에서 서천읍까지 콜택시 요금이 1만2000원, 판교면까지도 6000원인 것에 비하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요금은 서천군에서 다달이 운행 횟수 등을 따져 정산한 뒤 이장을 통해 마을 전담 택시기사에게 전해준다.

문곡리는 희망택시가 운행되고 4개월 동안 서천군 23개 마을 가운데 주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모두 252차례 택시가 오갔고 865명이 이용해 회당 평균 탑승 인원이 3.43명이다. 오지마을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다 보니, 그만큼 희망택시가 절실했던 셈이다.

문곡리 희망택시는 서천읍과 판교면 오일장에 맞춰 운행하는데 보통 10명 이상이 기다리기 때문에 서너 차례 택시가 오가며 주민들을 모셔드린다고 한다. 문곡리 희망택시를 맡고 있는 오혁철 기사의 친절한 마음씨도 사업 성공에 한몫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을 태우는 게 원칙이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까닭에 일일이 집까지 찾아가기도 한다.



## 희망택시로 1년에 1억 원 재정 절감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복지뿐 아니라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도움이 된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23곳에 새로 배차를 하려면 최소한 중형버스 2대가 더 필요하고 해마다 2억여 원의 예산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택시를 운행하면 1년에 8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농촌지역에서 승객의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대체운송수단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희망택시 도착지가 전통시장 근처여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정된 수입원이 되어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희망택시 운행으로 주민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함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추가 운행마을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대상마을을 신청 받아 마을여건 및 주민 이동패턴 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지자체 대중교통 관리부서의 난제 해결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버스가 운행할 수 없거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마을택시를 운행케 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탑승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서천군에서 희망택시를 운행한 이래로 경기개발연구원, 안성시, 파주시 등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천군 희망택시 모델로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는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천군 희망택시는 서천군 오지마을 곳곳을 누비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중한 발길을 뚫어주고 있다. 서천군청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23개 오지마을에 희망택시로 행복을 실어 나르고 있다.

### 30개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제도 확산 계획

서천군 희망택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째,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이런 공감대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정 지원보다 우선시되고 힘을 받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시행 전 운수업체(버스, 택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상호 이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기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시행하는데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었다. 서천군 희망택시는 엄밀히 말하면 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다. 때문에 버스운송회사나 택시사업자들과 경쟁 체계가 아니다.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업체에 이해시켰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셋째, 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전 개별면담 조사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개별 면담조사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해 정확히 계획할 수 있었다.

서천군은 '서천 희망택시'를 모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 30여 개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선정되어 다른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교통편의 복지 서비스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 인터뷰

정해민  
서천군청 교통계장

#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펼치게 돼 행복해요”

“처음 만든 조례가 도에 의해 무산됐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제도의 틀에 갇혀서 사장되는 게 화가 났지요. 그래서 오기로 다시 텀빈 거예요.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정책이니까요.”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입안 단계에서 성공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충청남도 와 의견 차이로 시행할 수 없었다. 1차 조례로 확정된 것을 포기하고, 정계장과 서천군에서는 꼼꼼히 다시 준비해 2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제 어르신들이 장애 가지거나 병원을 가실 때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역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해졌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계장은 이번 희망택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예전에는 읍내 나오거나 일을 보실 때마다 콜택시를 불렀어요. 일은 봐야 하는데 차가 없고 버스도 불편하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 비용도 시골살림으로는 만만치 않지요. 이제 희망택시를 이용하면서 그런 부담도 줄이게 됐으니 일석이조의 효과인 것이지요.”

그의 말대로 희망택시는 군 예산만 절감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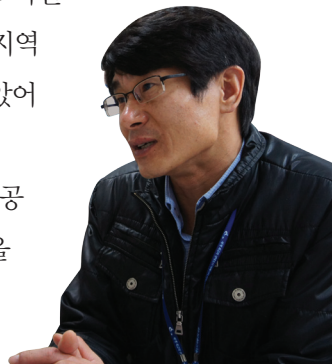
사정까지 편안하게 하는 ‘효자’였던 셈이다.

“마을마다 전담 기사님을 정하게 한 것도 유효했어요. 처음엔 이용자에게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택시기사님들도 고정수입을 얻게 되는 효과가 생겼거든요. 한 달에 13~15일 정도만 운행하는 것이지만 기사님들에게는 매달 일정 부분의 고정수입은 큰 도움이 되지요.”

제도를 도입할 때 전담 기사를 안 하겠다고 고사했던 기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기사님들도 모두 좋아한다고 했다.

“제도가 시행되고 사례발표를 하고 나서 30여개 지자체에서 방문하고 자료 요청을 해왔어요. 희망택시가 정부 핵심과제 3.0 선도과제로 선정됐고 연말에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정해민 계장은 서천 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지방공무원이다. 때문에 서천군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 경남 의령 독거노인 공동거주 사업

## 핵심 키워드

### 노후생활 공동거주로 안정성 확보

- 독거노인들 경로당 등서 공동거주 시행
- 올해 49개소 301명의 할머니들 공동 거주
- 지역 복지자원 연계 지원 서비스

### 지역 복지자원 연계한 서비스 체계 구축

- 공동거주로 위급상황 대처 속도 빨라져
- 제도시행 후 지역 내 '고독사' 발생 없어
- 경남도 미시행 11개시 도입 등 전국 확산 전망

## 개요

경상남도 의령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강과 접한 남쪽은 비옥한 토지로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산간지대에도 곳곳에 분지가 발달해 생활환경이 좋은 곳이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2007년부터 ‘홀몸노인 공동 거주제도’를 실시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농촌에 사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 때문에 타지로 나간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의령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홀몸노인 공동 거주제도’는 농촌의 해마다 증가하는 노령인구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노인복지 제도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업의 내용

### 독거노인들 경로당 등에서 공동거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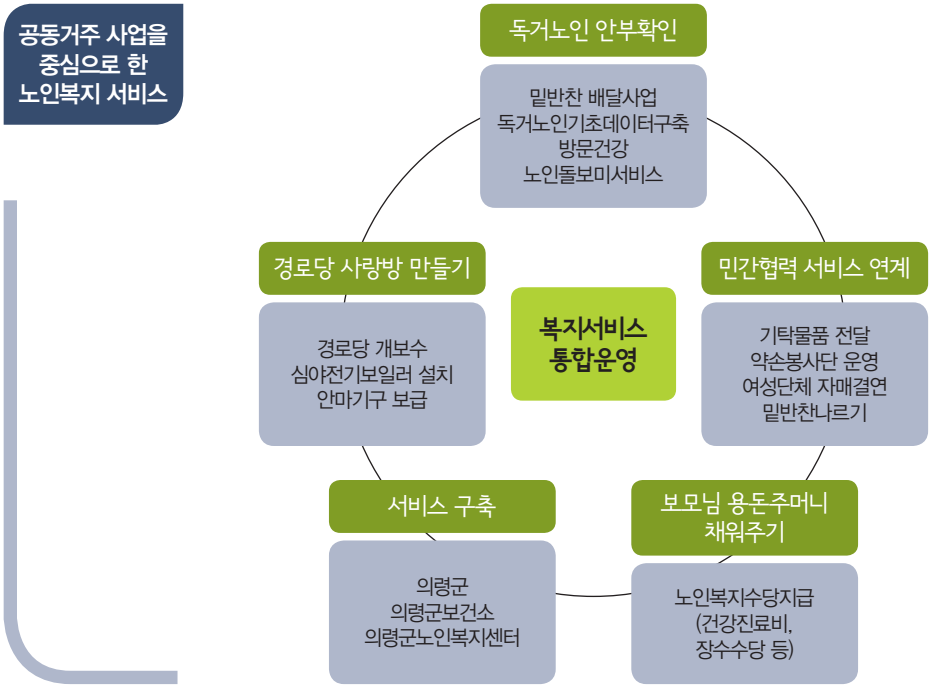
“추운 겨울에 동네 친구랑 함께 지내니 외롭지 않아 좋다. 잠이 오지 않으면 예전 젊을 때 이야기부터 먼저 간 영감 흥까지 같이 보면서 웃는다.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와서 같이 자도 아무렇지도 않다. 가끔씩 아이들이 찾아와도 걱정 하지 말라고 해. 내가 연락이 안 돼도 옆의 사람들이 어디 갔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걱정도 안하고 좋지.”

의령군 한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는 공동거주 생활이 편하다고 했다. 특히 겨울이 오면서 집에 혼자 누워야 하는 차가운 바닥이 싫었는데 의령군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생활하게 해줘서 참 좋다고 얘기했다.

의령군에서 첫 시행한 ‘홀몸 노인 공동거주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1%에 달하는 의령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 문제를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독거노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상당 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 생활에 따른 우울증 발생 등 의령군 내 독





저노인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의령군에서는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노후생활 보장으로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 이른바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의령군이 이 제도를 착안한 동기는 한 공무원이 지인의 집을 방문한데서 시작된다. 그는 나란히 신발은 놓여 있는데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 한분이 흘겁의 이불을 여러 겹 겹쳐서 덮고 잠을 주무시는데 방바닥이 냉골이었다. 작은 전기장판 한 장에 몸을 누이고 온 사방은 냉기가 가득했다. 보일러 돌리기도 아깝고 전기세도 아까워서 혼자 있을 때는 전기불도 끄고 바닥도 냉기만 살짝 가리는 정도로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농촌의 홀로 사는 노인



상정마을  
공동거주의 집

들이 전기세나 보일러 기름 걱정 안하고 따뜻한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 올해 49개소 301명의 할머니들 공동 거주

의령군의 홀몸 노인 공동거주제는 혼자 지내시는 노인들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낮에만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과 농촌의 빈 농가를 저예산으로 수리해, 5~7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07년 의령읍 만상마을 경로당 등 2곳에서 2년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자 2009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곳에서 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49개소 301명의 할머니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의령군에서는 1개소 당 매월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점검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점검하고 있다. 거주하는 곳의 재난을 대비하여 군에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해주고 기본적인 생활 비품인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등을 구입해 드리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연계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지역 복지자원 연계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시설지원으로는 저예산의 운영비 지원, 공동거주 기반구축비 지원, 화재보험 가입, 비품구입 등이며,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지원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고지혈증, 혈압, 혈당측정 등 건강관리 자문과 방문 진료서비스이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의 원 버튼 서비스 지원으로 위급사항에 대비하고, 자녀 및 병원 등과의 유기적인 연락처를 비치 활용하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 확인, 재가 복지센터 연계, 목욕, 식사배달 등의 지원,

지역봉사자와 연계 가사도움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공동거주로 위급상황 대처 속도 빨라져

의령군의 공동거주제도는 노인들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례로 한번은 공동생활 거주지에서 내리는 눈길에 할머니께서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같이 생활하는 어른께서 발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비상연락망으로 자녀에게 연락해 위기를 모면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를 발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졸중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만일 공동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면 모두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 제도시행 후 지역 내 '고독사' 발생 없어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거주제'가 정착하려면 먼저,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사전에 준비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령군은 개소당 5~10명의 마을단위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만족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이미 수치로 검증됐다. 의령군에서 공동거주제 시행 이후 독거노인 고독사가 2007년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거주제가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겨울철 보일러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자원 연계로 서비스 효과는 극대화 됐으며 기존 건물 활용 등 저예산

## 사업의 성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장김치

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나타났다.

### 경상남도 미시행 11개시군으로 도입 등 전국 확산 전망

경남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혼자 사는 노인 5~10명이 숙식을 함께하며 텃밭도 가꾸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며 “경남에서도 시군과 협의해 318개의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선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서 81곳의 홀몸노인 공동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우선 내년에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지 않는 11개 시군에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읍·면·동에서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5000명 가운데 29%인 11만8000명이 혼자 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곳당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고쳐 혼자인 노인이 친구들과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로 공동거주제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계획 및 조언

#### 공공생활 수칙 제정 등으로 갈등 해소

공동생활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작은 일에도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세밀한 정성과 관심이 필요로 하다. 음식을 전달 할 때도 개인별 접근이 아닌 공동생활 전체를 항상 강조하

는 방법으로의 갈등을 무마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 분에게만 친밀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례로 어른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때였다. 공동거주 하는 어른과 그렇지 않은 분이 고성이가 오가며 언쟁을 시작했다. 똑같은 선물인데 드리는 순서에서 서운함이 있었던 것이다. 공동생활 하시는 어른들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드렸던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공동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어른이 화가 나셨던 것이다. 이에 서로 오해가 없으시도록 모두 계실 때 똑같이 공개적으로 나눠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코골이 등 수면 습관이나 위생상태 때문에 공동생활을 할 때 불협화음이 일기도 한다. 오랜 생활 습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설득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세면이나 취침 등 생활계획표 등 공공 생활 이용 수칙을 제정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

### 지역 단위에서 능동적 대처 필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모든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비용 등을 제공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을이나 지역 단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이 마른 사슴에게 우물을 파줘도 사슴이 스스로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농촌사회서비스를 공동체로 진행할 때 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방향, 목표 등을 제시 하고, 민은 관이 제공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담당자: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 박말도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연락처: 055)570-2501 / 이메일: mardop@korea.kr

## 인터뷰

박 말 도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계장

# “공동거주제 만족하는 어르신 보면 보람”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공평하게 같이 하며, 누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움직여 협동해 식사와 청소를 하는 등 즐겁게 공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동거주제는 정부에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독거노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령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박말도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계장은 공동거주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정부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서로 협동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낼 때는 대화의 상대가 없어 외롭고, 쓸쓸하고,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느라 추위에 떨고, 끼니를 제대로 차려먹는 것도 귀찮아 건강이 나빠지는 등 생활에 활력이 없고 우울했지만 공동거주제 생활을 하면서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TV를 보거나, 윗놀이를 하는 등의 오락으로 온정이 넘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부모를 시골에 두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분들도 항상 부모님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었으나, 이제는 공동거주지에 전화 한번하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님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아한다”고 전했다.

그는 2~3년 내에 진행될 개선 문제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거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해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맞게 공동거주시설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에 도움이 될 자원봉사자의 도움 등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품앗이 등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왔다. 서비스 수혜자가 가만히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 이야기

강원 횡성 |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구 달성 | 효경노인복지원

충북 영동 | 영동사회서비스센터





# 강원 횡성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 핵심 키워드

### 지역 주민 위한 종합 복지 세트

- 어르신대학, 교양·문화탐방 등 4개 영역 강좌 개설
- 결혼이주여성 위한 한글교육 등 정착 지원
- 분교아동 사회성 향상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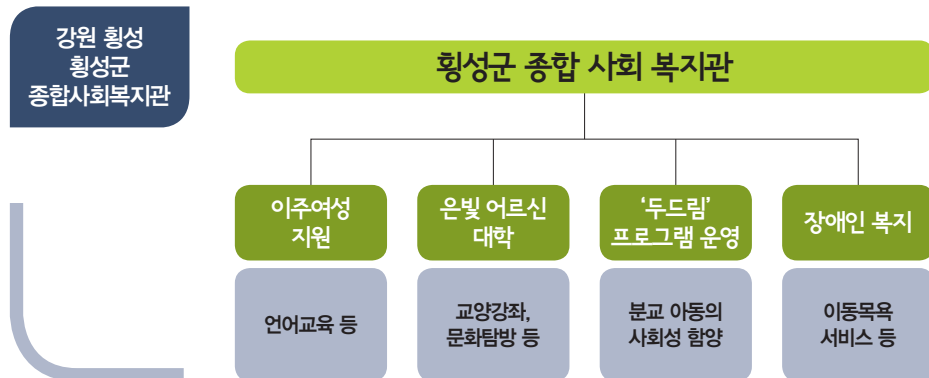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 역할
- 고국의 음식 먹으며 향수 달래는 공간으로

## 개요

강원 영서지역에 위치한 횡성군을 대표하는 3가지 단어가 있다. ‘애국’, ‘한우’, ‘더덕’이다. 횡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인 곳이다. 명품 한우와 더덕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진 횡성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녹색 휴양 · 관광지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유명한 세 가지가 있으니 횡성의 복지 제도다. 우선 횡성군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노인복지를 들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복지도 빠뜨릴 수 없다. 횡성의 이런 복지 콘트론타워가 횡성 종합복지관이다.



횡성군의 종합복지는 우선 노인들을 위한 ‘은빛 어르신대학’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손꼽을 수 있다. 여기에 분교아동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두드림’ 프로그램과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 서비스 등이 있다. 횡성군은 노인인구가 25%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모든 노인들이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횡성읍에서만 진행되던 노인대학을 ‘찾아가는 노인대학’으로 확대 운영해 각 면단위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소득도 올리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어르신대학, 교양·문화탐방 등 4개 영역 강좌 개설

횡성의 ‘은빛 어르신대학’은 지난 2006년 3월 시작해 7년째 운영되고 있다. 은빛 어르신대학은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닐 수 있지만 현재 재학생 평균 연령이 71세이며 이중 90%가 여성이다.

횡성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은빛어르신대학은 ‘어떻게 하면 보람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노후의 정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까’라는 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진들이 회의를 수없이 거치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은빛 어르신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교양강좌, 건강강좌, 문화탐방, 여가프로그램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120~150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 수강생들은 학기 중에 대학축제와 같은 장기자랑 행사는 물론 학교



어르신들이 참여한 경연대회

생활 활력소 중 하나인 봄 소풍도 간다. 3년 과정의 학사일정으로 운영되는 노인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여행도 다녀온다.

교양강좌는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우선순위로 정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으며 건강강좌는 의사·한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등 건강 전문가들까지 초빙한 노인성 질병에 대한 강좌가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문화탐방은 유원지 문화탐방보다 도심에 있는 문화시설을 탐방하는데 맞춰지고 있다. 또 정서함양을 위해 연중 1회씩 마당놀이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여가운영 프로그램은 글사랑(한글)반, 일본어반, 우리춤반, 민요반, 웰빙댄스반, 생생요가반, 가요반, 가곡반, 에어로빅 체조반, 사물놀이반, 종이공예반 등 1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연말에는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 위한 한글교육 등 정착 지원

횡성군내 300여 가정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실, 가족교육 등 교육사업과 취업연계, 상담, 합창단 운영 등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림촌'(다문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횡성읍주민센터 인근에는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음식점 '다림촌(多林村)'이 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새로운 꿈을 일구는 삶의 터전이다. '다림촌은 서로 다른 개개인이 어울려 작은 마을을 이룬다'는 뜻이다. 전통한옥 형태로 지어졌으며 지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정부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0년 용지와 건물 및 각종 시설들을 장만했다. 이곳은 8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사랑방도 운영한다.

2010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다림촌은 그동안 고객들의 요구에 알맞은 식단개발 등 본격적인 영업 준비를 끝냈다.

특히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맛과 향을 만들어냈다. 친절서비스 등 고객응대 요령과 계산하는 법도 배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 6개국 12개 음식을 확정했고 본격 영업에 나섰다.

다림촌의 창업주는 5명이다. 오설매(중국)·프엉(베트남)씨가 주방, 루스길 랑(필리핀)·찌 라 난(태국)·방 티 타이엔(베트남)씨가 서빙을 나눠 맡아 운영한다. 다림촌은 요일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각국의 차, 전통의상, 축제, 명절 등도 소개하고 있다.

1997년 결혼이민을 온 오씨는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좋다”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다”고 말했다. 2008년 한국에 온 푸영씨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분교 아동 사회성향상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농촌지역 특성상 소외되기 쉬운 분교 아동들을 찾아가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교 어린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술을 활용한 집단 심리치료,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체험활동,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여기에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탕까지 오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화된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분교 아동 사회성향상  
'두드림' 프로그램

## 사업의 성과



은빛 어르신대학  
사물놀이반에서 장구를  
배우는 어르신들

###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와 새로운 활력소 제공

횡성군의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 복지 세트는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훌륭하게 보완해준다. 비록 장소가 중심지가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런 불편쯤이야 감수 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는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지역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노인들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노인 대학을 다니면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친구들도 사귀고 몸도 움직이다 보니 예전에 아팠던 곳도 이제는 별로 통증이 없다”고 전했다.

은빛 어르신 대학은 지역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에도 만학의 열기는 뜨겁다. 노인들에게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던 횡성군에서는 이 노인대학이 노인들의 재미요 살맛이다. 특히 사물놀이나 댄스교실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 있는 강좌다. 노인들이 횡성군 종합복지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교양 강좌를 들으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다.



## 고국의 음식 먹으며 향수 달래는 공간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림촌은 지역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이 그리운 이주여성들에게는 잠시나마 고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기에 좋아한다. 이들은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의 고향 음식을 먹이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대표자: 전덕중 /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연락처: 033)345-3450 / 인터넷카페: <http://www.hsnanum.or.kr>

## 인터뷰

이은애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복지지원실장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대중 참여 견인”

“농촌은 문화콘텐츠와 인프라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은애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복지지원 실장은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복지관에서 가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지난해 노인대학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9개 마을에 있는 대학에서 1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문화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면에 사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은 프로그램 이용하기가 힘들어 참여가 낮은 점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주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08년부터 12명의 지도자가 일대일로 수업을 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도자 한 명당 세 가구정도 방문하면서 모두 30가구 정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복지관이 횡성읍에 하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조그마한 센터를 설립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때 교통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마

을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조금 더 근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 실장은 이어 “모든 예산을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업에 한계가 많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지원 사업에도 많이 선정돼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 달성 효경노인복지원

## 핵심 키워드

### 노인복지 서비스 위해 지역공동체 구축

-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시도
- 거동 불편한 노인들 식사·목욕 도와
- 노인 위한 '밑반찬 도시락'사업 참여
- 현풍면 등에서 노인복지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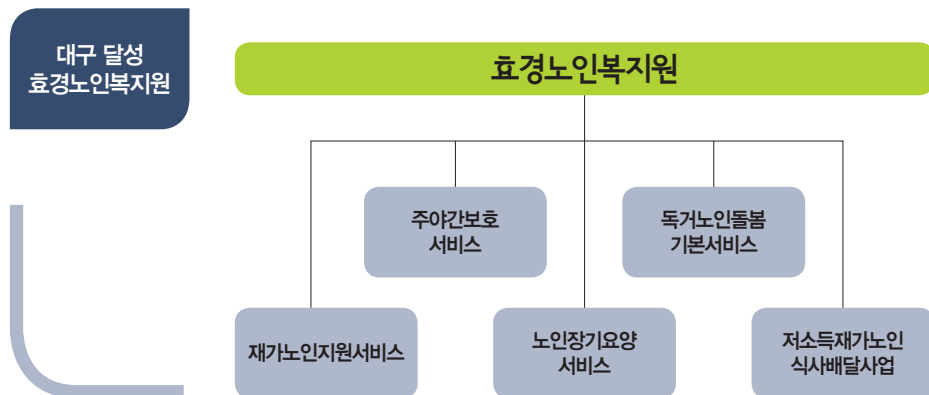
### 열악한 지역환경 극복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성과로
- 숨김없이 노인문제 상의하는 지역공동체
- 후원·협찬금 등 투명공개로 기부 효과 홍보

## 개요

농촌의 고민이자 농촌복지의 화두는 노인문제다. 특히 도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오래된 숙제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발적인 민간 공동체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효경노인복지원이 그 주인공이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도시가 아닌 농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도시와 붙어 있지만 모든 환경은 우리 농촌 그대로인 곳이 달성군이다. 효경노인복지원은 달성군 현풍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노인 1258명의 복지를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시도

효경노인복지원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해 만들어진 노인복지원이다. 효경노인복지원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달성군은 농촌지역으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복지 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의 '벗'이 되어드려야겠다는 것이 효경을 만든 계기였다.

농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계층이 농촌 거주노인들이다. 경제 여건의 악화나 교통 불편 같은 농촌의 전통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 수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 노인 세대는 '가족 없는 가정'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 거동 불편한 노인들 식사·목욕 도와

효경노인복지원은 이런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 그들은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모았다. 이들과 함께 길거리 모금 등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후원을 호소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도 끊임없이 시도했다. 지역의 기업체도 방문했고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단체를 돌아다니며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런 노력들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움직였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 누워계시는 노인들의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도우면서 온갖 굶은일을 하던 이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기쁨이 잡혀갔다.



달성군 홀로사는  
어르신 경로 회 잔치

### 노인 위한 '밑반찬 도시락'사업 참여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던 2004년 처음으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밑반찬 도시락' 사업이었다. 효경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이 때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성을 갖춘 회사의 형태가 필요해서 서둘러서 발기인을 모으고 체계를 갖추면서 효경은 법인 체계를 갖추었다.

### 전국 처음으로 야간 노인잔치 시도

2007년 10월, 효경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녁에 하는 노인잔치를 벌인 것이다. 자원 봉사자들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밤에 더 외로워하는 노인들을 감안했던 행사였다.

초저녁이면 모두 잠이 드는 농촌의 특성상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정은 저녁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이런 어르신들을 오랜만에 밤 마실 나오듯 편안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결국 성공한 것이다.

효경노인복지원은 달성군민체육관을 빌려 500석의 자리를 만들고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관내 기관은 물론이고 상가, PC방, 술집 등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참여를 권하고 홍보를 했다.

###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로 공감의 장 마련

효경노인복지원은 경찰서에는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인근 기업에는 노인들을 모시고 올 차량지원을 요청했다. 면사무소나 유관 기관에서



는 테이블과 의자를 빌려 왔고 여러 곳에서 협찬도움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른들을 마을까지 찾아가 모시고 왔다. 결국 자리가 모자라 외부에 천막을 쳐서 300석의 자리를 더 만들 정도였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회원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나서 주었다. 특히 그 다음해부터 행사 때마다 적십자사에서 식탐차를 지원해주는 등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고, 이제는 지역민은 물론이고 민·관·지역기업이 하나가 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효경노인복지원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온정을 나누게 되었으며 이러한 따뜻함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행사는 달성군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큰 잔치가 되었고 농촌지역에 부족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역민과 함께 공감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 현풍면 등에서 노인복지사업 전개

효경노인복지원은 현재 현풍면에 효경노인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20여명의 어른들을 24시간 입소보호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구지면의 효경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110명의 재가노인 지원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사업의 성과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성과로

효경노인복지원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공동체 구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봉사자 및 후원자 대부분이 지역출신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지역 복지공동체'다

2001년 노인주간보호서비스(13명)로부터 시작된 복지서비스가 현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 2개소(어르신 27명/8명, 직원 7명/2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개소(현풍면 중심으로 3개면에 125명, 구지면을 중심으로 2개면에 121명, 직원 8명),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달성군 9개읍면에 911명, 직원 36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5개읍면에 16명, 직원 6명),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매일 도시락 18명, 밑반찬 배달 13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어르신 20명, 직원 13명), 노인일자리(복지형)사업 2개소(40명) 운영 등 총1,258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69명의 직원들과 200명의 자원봉사자, 300여명의 후원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 총액은 19억 3000만원에 이를 정도이다.

### 숨김없이 노인문제 상의하는 지역 공동체

효경노인복지원은 다른 곳과 달리 노인들의 표정이 밝은 게 특징이다. 그만큼 노인들을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다. 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형편상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봉사자와 직원들이 집안 어른 보시듯 함께 웃고 울면서 진정으로 농촌노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자녀들도 숨김없이 노인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제 효경노인복지원은 달성군에서 농촌 노인들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후원·협찬금 등 투명공개로 기부 효과 홍보

효경노인복지원은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후원금품이나 지역의 협찬지원금 등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부나 지원이 지역복지사업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알리는 효과를 보여준다. 효경노인복지원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복지 철학과 가치의 차이로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시샘하듯 말하는 오해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 등 행사를 열면 한편에서는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터무니없는 말로 행사 추진요원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다.

한번은 지역 행사를 치렀는데 일부에서는 효경노인복지원이 후원금으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돌기도 했다. 특히 아직까지 노인복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나 단체에서 해주는 것만 받아온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어느 동네에서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효경노인복지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나갔다. 효경노인복지원은 지역민이 도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전한다. 후원금이나 물품의 사용 내역을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소식지를 통해 봉사자 명단과 후원·협찬금 등 경과보고를 한다. 이렇게 지역 모두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공동체의 역할을 알리고 훈련한다.



동네 어르신들을  
김장김치 나눔 자원 봉사

대표자: 김양희 이사장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27길 25번지  
연락처: 053)611-3777~9 /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ilovehg1004>

## 인터뷰

김양희  
효경노인복지원 이사장

# “노인복지제도 농촌 현실 반영돼야”

“농촌의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고 가야하는 오래 된 숙제입니다.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인이지요. 농촌의 노인은 우리 모두의 부모세대로, 당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세대를 먹이고 교육시켜 주면서 오늘날 장성한 우리를 있게 한 훌륭한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우리가 받았던 보살핌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늙고 병들었다고 외면한다면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가, 훗날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반복 될 수도 있습니다.”

효경노인복지원 김양희 이사장은 ‘작은 거인’이다. 선뜻 나서는 이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 소홀할 수밖에 없는 농촌노인들의 어려움을 위해 평생 한길을 걸어 온 사람이다.

그는 태어난 고향이 농촌이어서 그랬는지 예전부터 농촌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가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바라는 일이 있으면 어른들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종교를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빌거나 조상들에게 기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실천 의지가 효경이 단순한 복지원이 아닌 탄탄한 농촌 복지공동체



효경노인복지원

를 구성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지금의 효경은 초창기보다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과 소통하려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지역민 속에서 함께 하려는 노력이지요. 사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재원 마련이 힘들었지 주변 사람들과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시설을 지을 때 주변에서 싫어해서 속병을 앓는다고들 하는데 우리 효경은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요.”

지역 복지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쉬움이나 애로사항도 많아요. 직원들의 규모가 벌써 70명 정도가 되는데 항상 미안해요.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살림이 빠듯하다보니 안돼요. 특히 도시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같이 일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 충북 영동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 핵심 키워드

### 소외계층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보조 등 인력파견 사업 실시
- 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이 기본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위해 파견인력 교육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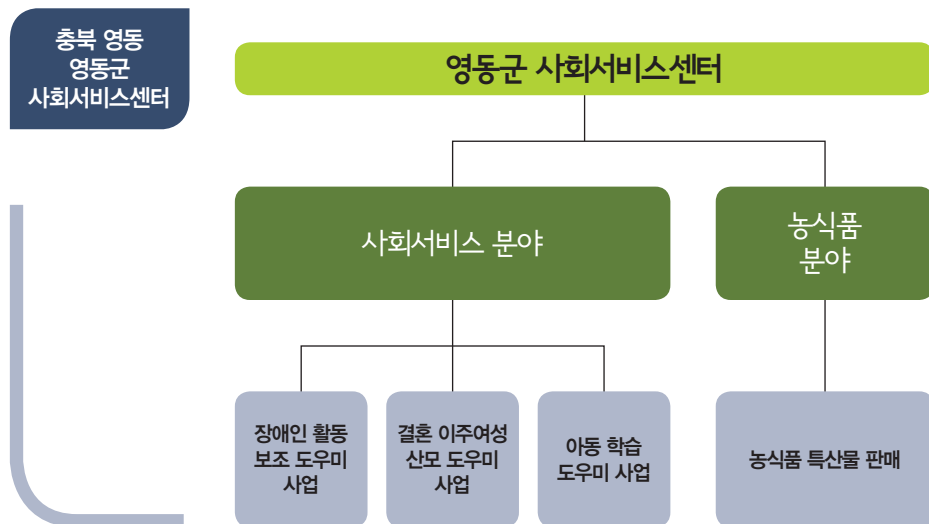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역할

-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1석2조'
- 직원 60~70명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고객 만족도 높여 주민 참여 확대시켜

## 개요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보행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을 돕는 도우미 역할도 한다. 맞벌이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돌봐주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역할도 한다. 한마디로 소외계층의 어려운 부분을 사회 서비스하는 곳이다. 물론 이 사업들은 영동군에서 지원한다.

이렇듯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 사업의 내용

### 장애인 활동보조 등 인력파견 사업 실시

농촌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다. 도시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생활 형편이 넉넉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한 번 집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애인을 감추고 가두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가족들은 바빠서 일일이 장애인을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이다. 이들을 부르면 가족도 편하고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를 도와 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도시처럼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산모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봐주는 도우미도 부를 수 있다. 특히 산모가 결혼이주여성이라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여성을 도우미로 파견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아이를 봐주고 학습 도우미까지 해주는 인력이 있다.

이런 인력을 파견해 주는 곳이 일자리 공동체인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다. 지역사회 복지 전공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외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은퇴를 했거나 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멀리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사무실

## 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이 기본사업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의 기본사업은 바우처사업이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도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경쟁 기반의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운영 기관들은 최소한의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데, 대기업들은 홍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제공인력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여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곤 했다. 당연히 기존 제공인력들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다더라 하면서 갈등이 생기곤 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구조다. 결국 대기업이나 규모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도 사회서비스 사업에 손을 댔다가 1~2년 지나면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사회서비스센터는 10여년 사회서비스 사업을 유지해온 것을 제공 인력들이나 대상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갈등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느냐를 넘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지향할 때 갈등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60~70명의 직원을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 사회서비스 제공 위해 파견인력 교육은 필수

초창기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 활동 보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했다. 하지만 환영 받지는 못했다. 아직 농촌 사회에서 장애인은 집안의 골칫거리 또는 감추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일이 바쁜 사람은 통학을 도와줬다. 맞벌이 때문에 어린 아이를 집에 놔둘 수밖에 없는 경우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고 공부도 도왔다.

그러던 중 하나 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즉 제공인력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상자와 제공인력들을 연결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재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필수적이었다.

## 사업의 성과

###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1석2조'

사회서비스센터는 이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서비스는 1석2조의 효과를 불러온다. 그 목적이 농촌지역인 안동에서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침 무상 사회서비스가 일부 유료화 되면서 사회서비스센터는 그 접점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장애인 5명에게 활동 보조를 해주면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50여명의 장애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일로 늘어났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산후 도우미 일도 늘어났고, 맞벌이 부부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면 현재 60~70명의 직원 인력이 모자란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사일 이외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영동에서 60~7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해야 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결혼이주 여성들도 취업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경우 가능하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산모 도우미를 해주길 원한다. 한국에 와서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 이런 여성들의 도우미 역할로 파견을 가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

### 고객 만족도 높여 주민 참여 확대시켜

아직도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매년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이 생기기도 한다. 초기에는 발로 뛰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영동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알리면서 회원들을 모

집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 참여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왕도가 따로 없다. 서비스 질을 높여 이전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되어있다.

### 교통약자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안

사회서비스센터는 사회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 변화에 맞춰 영동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안하여 영동 주민 복지 사회 서비스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영동 사회서비스센터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차가 없으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약자들에게 차량 지원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센터는 이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동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에서 이미 운영 조례를 발표한 바 있고 예산과 세부 시행 내용이 결정된다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및 조언

대표자: 서은선 /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 71  
연락처: 043)744-4949

## 인터뷰

서은선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대표

#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지원과 협조 중요”

“개인적으로는 갖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10여 년을 끌고 왔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 자체의 지속성은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서은선 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대표는 센터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 10년 이상은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영동군은 농산물 기반의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본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육성 정책이 절대적이라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끊임없는 대화와 제안이 지속성을 위한 노력의 큰 맥이라고 본다.”

서 대표는 이어 “물론 사회서비스 사업이 국가의 복지비용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이 제도권에서 주어진 사업이라 진입 시 큰 부담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참여하는 담당자나 제공인력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회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 문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 대표는 “사회서비스 사업도 사업이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검증 받는 과정은 필수이고 거기에 더해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도 1년 2년, 아니 그 이상을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괜히 사업 진입이 일반 사업에 비해 쉽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접게 되면 그 리스크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기대했던 대상자와 일자리 차원에서 참여했던 제공인력들에게도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 농업·농촌에 희망을 담다

---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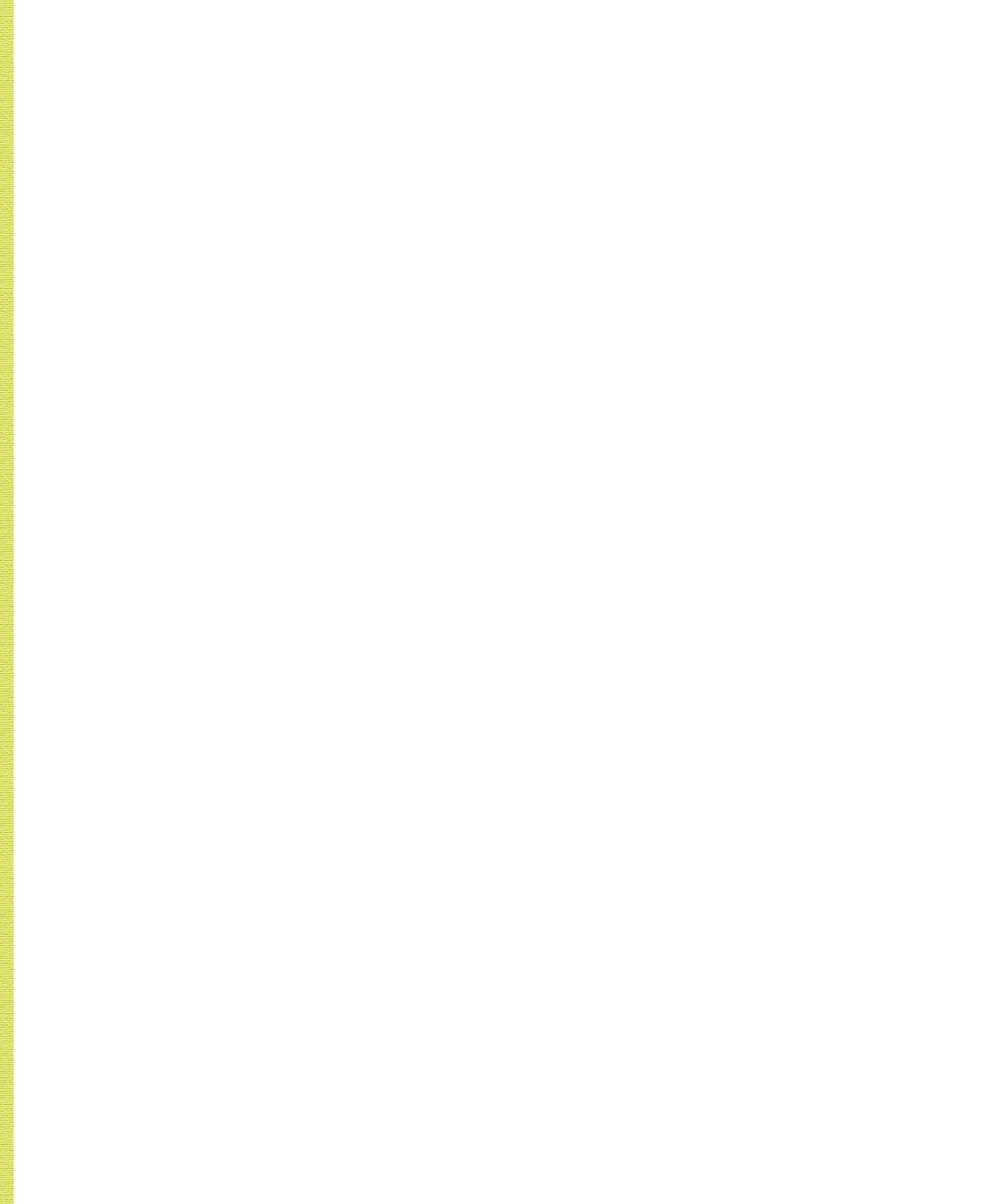
<b>인쇄</b>	2014년 1월
<b>발행</b>	2014년 1월
<b>발행인</b>	이동필
<b>발행처</b>	농림축산식품부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2 <a href="http://www.mafra.go.kr">www.mafra.go.kr</a>
<b>기획·출판</b>	한국농어민신문
<b>발간등록번호</b>	11-1543000-000352-11

이 책의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전재,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담다**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 사례집